

HerStory

VOL 5 여름호 2003.06.10

여러분
월장하십시다!!

부산대 여성주의 월간월간 멤버 모집
회원, 가입 신청 접수
문의처 011-9588-7214 ddosily@freechal.com 월간월간 사이트 www.wallzang.net

여학생 잡지 (HerStory), 총여학생회 멤버 형식 모집
051-510-1924, 016-665-1941



여자의窓

글 설래 hinadap@freechal.com
사진 이코 peaceinme@freechal.com

政·外 4학년

"졸업사진" 촬영.

○ 때: 5월 22일(木) 11:00.

○ 장소: 사회대 전디발.

※ 이쁘지 않으면 다 죽음!!

2003년 모월 모시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의 신고가 들어왔다.
내용인즉 사회대 앞에 살인을 예고하는 협박글귀가 붙었다는 것이다.
대학내 살인사건이라니!

"예쁘지 않으면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예쁘면 산다?

졸업을 앞둔 여학우들에게 은근히 비슷비슷한 꽃단장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나요?

소중하게 추억될 졸업사진.
당당하고 개성있게 찍어요!

Contents

여자의창	2
기획특집 [군대]	4 진짜 군대 이야기, 여자들이여 속지말자!
	6 예비군 차량지원의 문제점
	8 부대신문, 왜 이렇게 오만한가
단신	9 The Women's News
기획특집 [결혼]	10 졸업, 취업과 결혼 사이
	12 결혼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가지 것들
대담	14 아줌마들의 대담
	18 딸부자집의 사랑과 결혼이야기
광고	19 살림 실태조사
가상 [interview]	20 허난설헌, 누가 앵무새를 가두어 키우는가
기획리뷰	22 화장실 습견사건, 화장실 엿보기
[interview]	25 총학생회 끝쥬를 만나다
	26 강의실 밖에서 이경 선생님을 만나다
	27 총학생회 정책국장 신주영을 만나다
	28 부산대 여대생 취업 실태
만화	30 여자대탐험
	32 신입생환영문화기사 정정본
수기	34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을 때
서평	36 라나 톰슨의 자궁의 역사 를 읽고
전격인터뷰	37 상대앞 남근송, 사실은 물개였다!
칼럼	38 한 기독교중앙간지의 '호모포비아'?
	39 여성주의기행동아리 마실의 봄기행 - 전주국제영화제

HerStory



표지그림 - 한국의 민화 연화도 蓮花圖

만든곳 헬스토리 총학생회 잡지팀
인문이 경동, 평상심, 영화, 풍중,
설래, 이코, 호영, 자이
발행일 2003년 12월 10일
디자인 문화잡지 보일러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문창회관 4층 총학생회 T 510-1924

부산대여학생잡지 VOL. 5 여름호 2003.06.10

편집후기

'무지는 순수가 아니라 죄악이다' 브라우닝 -평상심
재능의 유무를 떠나서 내가 집착하는 영역과 무관심한 영역. 어떤 것이 더 가능성이 있을
까란 생각을 하게되는 요즘이다. 가지려고 할수록 세상은 관대하지 않아라는 노래가사가
생각나는군. 어쨌든 항상 게으름이 문제다. 웃 -화아
대학의 마지막. 삼광같은 5월.
함께한 당신들께 무한한 사랑을! 잡지가 나오면 시급적인 축제를 열자구. (글 하나도 안
쓴다고 하다가 최고로 많이 썼다. T.T) -평동

영화와 같은 성원에 함입어 고래. 풍중으로 탐바꿈하다. (HerStory)를 만드는 것은 마치 내
20대의 삶을 밟아나가는 과정과 닮아있는 듯하다. 모두들 멋졌어요! -풍중
아깝잖아 잘 지키기 대장 살려줍니다. 헬스토리... 함해해와! -설래
새로운 만남, 경험, 열림, 기쁨... 다들 너무 좋은 사람들! 수고했구. 고마워... 이코
첫경험이런 언제나 어렵다. 으흠! 16호는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들어보려! -자이
표현하고 싶어서 표출하고 싶어서 예술가가 됐으면 했다. (HerStory)라는 캔버스와, 지판
이라는 붓, 갖가지 색상을 가진 그녀들을 만났다. 지금 나는 글쓰는 예술가이다. -호영

글 | 이코 peaceinme@freechul.com

박카스 씹기

얼마 전에 TV에서 새로 나온 박카스 광고를 보았다. C는 군 입영에 앞서 실시하는 어느 병무청 신체검사장에서 시작된다. 주인공은 손바닥에 '3.5.2.7.3.4...'를 적은 족자를 보며 중얼중얼 외운다. 눈이 나쁜 주인공이 시력 검사에 앞서 검사관을 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력검사 담당관은 주인공이 외운 순서와 상관없이 가리킨다. 주인공이 외운 순서대로 크게 외치자 담당관은 이상한듯 쳐다본다. 그러자 주인공은 당당하게 '꼭 가고 싶습니다!'라고 소리치고 '사나이로 태어나서...'의 카피로 광고가 마무리된다. '저질 건 자란다'는 슬로건을 내거는 박카스 광고에서 무엇을 지키자는 이야기인지 머리가 저끈거렸다. 그리고 저 사람이 과연 정상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장년 군대를 가기 위해 박카스 주인공처럼 시력관을 외우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하는 (혹 이 광고를 보고 실연하여 abnormal person으로 신의 아들이 되기 위해 시도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다. -_-) 실상은 박카스 주인공처럼 자랑스런 前 현역들로부터 자-알 학습화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군대를 면제받길 원한다. 그리고 부단한 노력 끝에 신의 아들이 되지 못한 자들은 징병되어 끌려간다. 아아~... 얼마나 안타까운가! 군대에 끌려가서 끝없는 구타와 제벌, 추위, 죽을 고비를 넘기며 하루 하루를 지새우는 꽃다운 청년이여! 그러나 이런 물리적 폭력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의 군대는 과거에 비해 물리적 폭력은 전보다 현저하게 줄었다.) 상하위계질서, 권위주의의 무조건적인 복종, 남성우월성 등, 그들은 이러한 군대에서 널리 퍼져있는 한국 사회의 매커니즘을 자알 내재화하여 제도 내로 자연스럽게 편입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인지 그들에게 X같았던 군대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탈바꿈한다.

오인용의 플래시

요즘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오인용의 플래시를 본 적이 있는가? 그 속에 군대는 그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고창은 신병에게 눈을 마주했다고 때리고, 맞은 김에 더 맞으라고 때리고, 계수 없다고 때린다.' (수많은 플래시 중 단편적인 부분만 말했지만 오인용의 플래시 속 '군대이야기'는 제벌에 있어서 아~ 주다재롭다.) 그러나 이 플래시를 능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前 현역 들은 이 플래시를 보며 군대의 실상을,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며 '똑같은, 똑같은'을 연신 외친다. 그러나 이러한 군대의 실상을 인정하며 더욱이 (before)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고, (after) 군대 있는 쪽으로는 오죽도 안 놀 것이라며 군대를 씹고, 씹고 또 씹었던 이들의 의식은 신비롭게(?) 바뀌어 간다. 심리학 개론에 나오는 이론인 인지부조화 현상인지, 방어기제 중 하나인지, 변형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들의 피해의식은 장마칠 수위보다 높다. 그들은 월장에 '예비역과 관련한 글'에 사이버 테러와 개인 신상 침해 등을 가했고, 이화여대의 '예비군 훈련 반대 자처와 양심적 병역 거부 지지'에 사이버 테러를 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일어난 부산대 자거에 종여의 '예비군 훈련 차관과 도시락 지원 반대' 글에 대해 공격을 가한 일들을 보면 그들에게 군대는 종교보다 신성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대한 흠집의 결과는 우리 주변에서도 가혹하게 나타난다. 이것을 때부터 지겹도록 듣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로 시작되는 수십 년이 흘러도 단 하나 바뀌지 않고 일정한 패턴을 지니고 있는 자랑차고 신성한 군대이야기'에 탄자를 걸러치면, 대부분은 비판자를 사람으로 안 본다. 아메도 그 이유는 그들의 모토인 '너 군대갔다 왔어? 군대 갔다와서 이야기하자! 군대 갔다와서 사람 되거든~'과 같은 피해의식이 발전된 우월 의식으로 인한 것이다. 이 우월감은 특히 여성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 앞에서의 각종 사이버 테러만 보더라도 여성들의 입으로 외치는 '反군대문화'를 처참하게 공격한다. 그러나 그들은 단연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비군복

무자도 군복으로 짓밟는다. '공익'을 자신들의 세계에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예가 아닐까?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의문이 든다. 만약 오인용이 여자였거나 공익이었거나 신의 아들이었다면 플래시를 보며 즐겁고 유쾌하게 웃을 수 있었을까? 아마 즐겁고 유쾌하게 오인용을 통쾌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벌 이러한 이중성을 깨닫고 일신 우월신화기를 바랄 뿐이다. 아아~ 얼마나 좋은가~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라!

군대문화!

군대문화, 군대의 문화이다. 청소년 문화, 청소년들의 문화이다. 청소년들의 문화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잘못되어 가면 사회에선 절타를 한다. 그리고 바뀌어 버린다. 그런데 군대문화는 바뀔 생각은 커녕 오히려 자신들에게 맞추려 하고 사회적으로 학내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다. 얼마 전 학교 선배가 휴가를 나왔었다. 그 선배를 원래 그다 좋아하지 않는 터라, 눈이 마주쳤으나 피하고 도망을 가려하던 차에 잡혀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게 되었다. 밥을 먹으며 자기 군 생활을 일렬히 토로하는 것을 들으면서 토할 뻔했다.

'너 나이면 군대에선 패물이지, 내가 만나는 다방서 일하는 애는 일 여덟인데, 개가 보통이지... 전에 근무중에 다방서 놀다가 딱 나왔는데 고참이 앞에서 있는 거야. 죽는 줄 알았나?~ 전에 고참한테 한 따귀리 하는데, 뺨을 뺨대 넘게 맞았는데 죽는 줄 알았나?~'

그런 걸 자랑이라고 말하는 건지, 너무나도 신성하고 충격적이어서 내가 죽는 줄 알았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다. 내 친구에게서 들은, 제복을 붙인다면 일명 'A군'의 인간관계론 친구가 새내기 시절 소크라테스를 논하던 동아리에서 A군을 알게 되고 이 A군과 커피를 마시러 갔다. 친구가 담배를 피려니 여자가 어떻게 담배를 필 수 있냐는 식으로 한마디를 하더라.

'꺼져라!'

그러나 꺼져라로 시작된 투고의 철칙은 가히 상상을 뛰어넘었다. A군과 다른 몇몇 지분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간 어느날, 자신의 성명에 경협담으로 시작된 군대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고 어찌하다가 친구와 다투었다고 한다. 다투던 중 같이 있던 몇몇 지분들이 왠 '내네 학과는 인간관계가 좋아야지, 싸우면 쓰냐?'라는 질문에 A군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인간관계는 인간관계이지만, 여자와는 인간 관계가 성립될 수 없어!'

아이가 없어 외려 웃음이 나온다. (친구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고 더토하는 줄 알았다.) 단연 나와 내 친구의 이야기가 아주 특이하고 드문 경험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나나 친구처럼 기억하지 못하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네 이야기에 깊이 스며들어 있을 것이다. 아무런 생각 없이 쓰는 군대용어처럼.

그래, 나도 사실 군대 갔다오면 사람되는 줄 알았다.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일 뿐이다. 그리고 이 환상으로 인해

공익 수기 | 공익, 염치불구하고 예비역에 합승하다

글 | 정재

한 때 콧물콧물하던 새내기였던 아이들이 예비역이 되어 캠퍼스에 돌아왔다. 무정하기만 한 시간의 흐름. 그 속에 예비역들이 있다. 99학번인 나는 작년 2학기부터 학교에 돌아온 그 예비역들의 한 명이다. 그리고 보면 참 오랜만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99학번 남자동기들과 함께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놈의 군대가 똬지, 3년 전, 하나 둘 주말마다 군주를 하고 나면 또 한 명의 동기가 머리를 뚫고 군대를 들어갔던 것이 떠오른다.

무척이나 비가 내리는 밤이다. 나는 신침에서 4급 관장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2년 4개월 동안 복무했다. 내가 복무한 분야는 산림 감시 요원이었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산복 걱정이 없어서 근무가 편했기 때문에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난다. 아마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만큼 비를 좋아할 일도 없을 것 같다.

사실 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공익으로 근무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할 것 같다. 하지만 그 생각처럼 나는 내가 공익으로 근무했던 것에 대해 콤플렉스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그 사실을 애써 숨기려 하지도 않을뿐더러 솔직히 군대 대신 공익을 했었다는 사실에 대해 아주 다정다감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공익에 근무했던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잘 하지 않는 것은 A라는 사람이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잘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분야에 대해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그런데 예비역이 되어 돌아온 나의 남자 동기들, 아니 그들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예비역들은 군대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긴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부터 술자리까지 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언젠가 군대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그들이, 어떤 농담에서처럼 군대에서 추구한 이야기를 꼭 길게 지루하게 늘어놓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 군대와 연관시키기를 즐긴다. 재미있는 것은 그것에 대해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작 4주 동안 군대에서 훈련 받은 것이 전부인 내가 군대에 대해 알아봐야 할지 모르겠는가? 하지만 다른 예비역들과 어울려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그 이야기에 동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문화가 몸에 익어서 제 3자와 이야기할 때 내가 먼저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개시키게 된다. 아마 나 역시 예비역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모르게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너무 가려워져 있다.

조금 들추려하면 군대 안 가본 사람은 입 닫아라 한다.

그러나 닫아라 하여, 언제까지 닫을 순 없다. 학내 안에서, 사회 밖에서 잘못되어 있고 계속해서 잘못되어 가는 군대문화를 언제까지고 방치해둘 수는 없다.

군대는 바슬도 아니고 사람되기 위해 받는 특성화 프로그램도 아니다.

물론, 군대에서 학습된 문화를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도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다.

다육이 그 문화를 강요하는 것과 강요하는 것에 비판하는 것을 막는 것도 옳지 않다. 자신들의 입으로 육하는 군대를 언제고 신성하게 포장해 놓을 것인가? 뜯을 건 뜯어 아자!

그러나 여자들이여, 더 이상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타이틀에 속지 말자!

군대 갔다오면 사람된다는 말에도 속지 말자!

그리고 여섯 잘못된 군대문화와 그들의 의식을 말하기를 고이 접어놓았던 것을 다시 펴고, 소리를 높이자!

언제까지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입 닫고 묵묵히 참아낼 수는 없다.

왜냐면 우리도 사람이다! 패물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다!

가치 있는 것이지 않다. 군대문화에 대해 혐오감을 가진 나로서는 이런 나의 변화가 못마땅하

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몸 붙이고 살려면 군대에게 몇 개 정도는 함을 알아야 하고, 몇몇이던 군대식 농담에도 웃어 제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괜히 예비역들 사이에서 당황하기 십상이다. 그리고 이미 몸에 익어버린 군대문화는 벌써 무감각해져버린 지 오래다. 아저씨는?

그리고 보면 군대문화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곳에서 다른 분야에 복무했던 예비역들이 서로 전혀 모르는 경험에 대해서도 쉽게 호응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공익으로 복무했던 곳이 완전히 군대식으로 둘러싸인 것도,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들도 군대문화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도, 사실 이 사회 자체가 벌써 군대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제도 교육을 통해, 그리고 이 사회를 직접 살아가면서 스스로 군대문화를 체득하고 체내화시킨다. 알아서 간다고 해야 하나. 군대 기본 적도 군대 같 일도 없을 여성들이 오히려 남자는 군대를 갔다와야 하는 것도, 평범한 여자 후배가 군대 가고 있다는 박카스 광고의 남자 주인공을 멋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모두 그들이 이미 군대문화 속으로 들어와 버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초에 내가 청탁받았던 내용은 군대 대신 공익을 갔음으로 인해 차별받은 경험에 대해 글을 써 달라는 것이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의 글이 되어 버렸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이미 차별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미 군대문화 안으로 일부분 편입되어 버린 나는 차별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차별하는 거해자이다. 나뿐만 아니라 사회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화 밖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거해자이다. 아무런 불만 없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통해 사회로의 편입을 거부하는 그들에 대한 간접적인 거해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내가 이 사회 안에서 현역제대자들이, 혹은 그 문화에 익숙해진 모든 사람들이 공익소집해제자를 차별한다고 무단대는 것은 부끄러운 것 같다. 물론 그런 차별은 모두 잘못되었으며 개인은 자기정신을 통해 자신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예비군훈련에 빠짐없이 참가하려면 부끄러운 것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 같다. 그나마나 예비군 훈련 때 어디서 병장제대 계급장을 구해 달기는 해야 할 테다. 허허 (혹은보다 2개월 간격 근무하는 공익은 제대제도 병장제대가 아니라 이병제대다. 남들 다 병장인데 나만 이병이면 남사스러운 것 같다. 예구구)

2003년 부산대를 강타한 초강력 코메디!

「예비군 차량 및 도시락 지원」논쟁 표류기

글 김장희정 (총학생회 공동대표, 강동)
lckh7@freecat.com

선

거기로부터 말이 많았던 「예비군 차량 및 도시락 지원, 공약에 논란이 붙어 학교자유계사관(이하 자계)이 활활 불탔다.

이 건에 대해 평소 무지하게 일관아 하고 있던 터라

예비군 차량지원이 얼마 남지 않은 5월 중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총학생회에서 자유계사관에 글을 띄우고 대자보를 썼다.

이후 격렬한 반응과 메일러시와 자유계사관에 호명되는 일이 수차, 그간 자계에 종종 글을 써왔으나

이처럼 확대(→)를 받기는 처음이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무지하게 많은 분들이 무지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썼으나 핵심에 다가서는 말은 거의 없었다.

이번 일도 역사나 소통의 부재가 빚어냈다고

이 글은 소통의 시도가 변변히 어떻게 좌절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극복방안에 대해서도 약간 첨가를 할 생각이다.

(공약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 4호 '예비군 차량지원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이의 거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round1 - 웃기는 공약으로 당선되기

문제의 발단은, 지난 선거시기 '우리PNU (전학협) 선본측이 낸 '예비군 차량 및 도시락 지원'이라는 공약이었다. 소요되는 약 4천만원의 예산을 학생복지예산에서 충당할 것이라 밝힌 이 공약은, 아마도 6500명 예비역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 양심적 병역거부 및 반전평화를 주장하던 그간의 활동의 진정성을 진정으로 의심케 하는 대목이었다.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하나, 문제의식들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선거의 공약으로 막하니 나왔다. 만일 이 공약이 나오기 전에 제대로 의사수렴의 과정을 가졌다면 당선 이후 총학생회가 공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물었다는 이유로 공약철회 발표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사실, 물었다는 것이 더 웃긴 일이다). 이후 '효천파탄' (한총련)에서는 도시락 지원에 천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차량지원만 하겠다고 밝혔다. 오, 저 단호한 모습! 그러나 들은 정말이지 알아차나 매쳐나왔다. 선거가 중반에 다다랐을 무렵, 각 언론사에서 주파한 '총학생회, 총학생회 선본 공개 토론회'라는 것이 열렸다. 이 공약은 '잠시' 논란이 되었다. 양 선본 모두 이 공약을 낸 것에 밀렸던지, 한쪽에서 이 공약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던지고 다른 한쪽에서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는 면담을 했다. 같은 단상에서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당선 이후에 더 많은 의사수렴을 거치겠다는 의문스러운 답변으로 넘겼고 시간 제약으로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었다. 선거과정에서 단 한번의 토론회가 있었을 뿐(그나마도 제대로 논의는 없었지만), 이 미미한 난무하는 선거가 계속 진행되었다. 만일 선거기간 제대로 된 의사소통의 채널이 확보되어 있었다면 선거기간에서도 철회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 공약뿐 아니라 생리대 무상지급과 같은 선심성 공약도 마찬가지로 선거진행미숙과 변별성없는 공약 덕에 전무후무한 재투표를 거쳐 결국 '우리PNU (전학협)'가 3년 만에 총학생회 탈환에 성공했다. 한총련의 장기집권에 따른 양심들과 함께 대표주자 PNU'카드'가 결정타였지만, 예비군 차량 및 도시락 지원도 한몫을 했다. 그렇게, '우리PNU'는 당선되었다.

round2 - 끈질기게 묻기 vs 질질 끌기

당선이 되었다고 장땀인가. 문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총학생회(이하 총학)도, 총학생회(이하 총학)도 선본 포리표를 떼고 중운위(중앙운영위)에 모여앉았다. 많은 분의 오해와 달리 총여는 중운위에서 수차 논의를 가져가려고 했으나 총학에서 고강난 라디오 마냥 같은 말만 반복했다. 총여도 질렸으나, 더 질린 것은 총학생회였다. (물론 중운위 다른 분들도 납일처럼 앉아 계셨다. 할 얘기는 많지만 지면관계상 생략할 뿐이다) 겨울방학에 열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중운위까지 계속 제대로 논의할 것

을 제안했으나, 미안한 표정으로 '내부적인 논의가 끝나지 않아 다음 회의에 이야기하자'고 말하였다. 어찌됐는가, 내부적 논의가 안 끝났는데, 6월까지 시기가 좀 있으니 천천히 논의해도 될 것이라 했고, 그러려 했으나 대의원대회가 있었다. 3월 중순에 열리는 대대에서 사업으로 통과되면 재본이 힘들기 때문에 대대 이전 중운위에서 제대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결과? 녹음된 말, '내부적 논의가 안 끝나서 다음회의에 이야기하자'고, 대신 다음 회의 때는 꼭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 '다음회의'라는 것이 대대 직전에 열렸고, 그때도 역시 내부논의가 안 끝났다고 말했다. 그날은 더 이상 물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고, 결국 '총여에서 문제제기가 들어와서 대대가 끝난 이후 공청회를 열어 이 사안의 이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하고 다른 사업들만 통과하기로 했다.

이후 대대가 끝나고 학자수장(학원자주회추진위원회)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는데, 그간의 추이를 하나도 알지 못했다. 중운위에서 이 공약과 관련해 논의된 것이 있었다는 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 사업을 추진할 힘이 물었다고 한다면, 총학 내부의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으리라. 오오, 그래서 학자수장과는 어이없이 또 헤어졌고, 중운위를 통해 논의를 해보려던 헛된 꿈은 말씀하시라졌다. 이후 이라크파병 찬반으로 학내가 시끄러웠고, 4월 중간고사를 치고 나니 훌쩍 5월이 되고 대동제로 학내가 시끌벅적했다. 총여도 나름의 사업들도 바쁜 시기였으나,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했다. 이때의 경과로 보아 중운위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힘들 것 같았다. 그래서, 자유계사관과 자보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시키기로 했다.

round3- 자유계사관에 글을 올리다

5월 18일, '총학생회에 예비군 차량지원을 반대하는 이유'라는 자유계사관에 올린 글은 (이전의 총여글과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총학의 몇몇의 집행부들이 글을 써서 총여의 문제제기가 정당하다는 글을 썼으나 총학의 공식적인 답은 없었다. 그 사이 일반학우(→) 대부분 예비역(들)의 수많은 글들이 올라왔다. 당선된 공약에 대해 재론할 수 없다는 가바알게 제겨지는 얘기에서 예비군은 학생도 아니냐 지원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울분에 찬 목소리와 또 시비나 불행한 예비역들 좀 놔두라는 반응이 있었고, 거기서 한총대 감정적인 반응으로 번져 총여 해체시키자, 총남 조직하자 등의 하등권련없는 주장들이 무수히 올라왔다. 자계의 논쟁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 양양가는 몰라도 재미는 있겠으나 지면의 한계로 생략한다. 이런 글들 속을 표류하면서 '총학생회가 논의의 과정에 나을 것'과 '토론회를 개최'를 제안했으나 답이 없었다.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은 내부 논의중이니 좀 기다려달라고 했다.

총학생회에서는 제3자 인양 자계를쟁을 관망하다가 결국, 26일 '내부토론을 거쳐서 총여의 비판을 받아들이며 실수를 인정, 공약을 '전환' 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공약을 철회를 밝혔다. 이 글이 올라온 직후부터 의사수렴 없이 공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이 대한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월경사태를 능가하는 예비역들의 거센 반발로 '이후의 비판을 견디하게 받아들이겠다'던 총학생회는 이틀만에 다시 뒤집어 정책투표 실시 후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후 총학의 집행부들은 각자를 돌아다니면서 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을 사과하고 정책투표를 '제안'했다. 참여도도 신뢰도도 전혀 보장되지 않은 이 정책투표는 결국 실시되었고, 결과는 총 202명 투표, 찬성 158명(78%), 반대 41명(21%), 무효 29명(14%)로 나왔다. 자신들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고, 1회성이라 문제가 있다고 말했던 총학생회에서는 정책투표에서 나온 학우들의 의견을 견디하게 따라 차량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되짚어보기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덕분에 5월, 자계가 후끈 달아올랐다. 반전평화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말하던 곳에서 군사훈련의 안정성상에 있는 예비군훈련 잘 다녀오라고 차량과 도시락을 지원한다고 하지를 않나, 문제 있다고 얘기 좀 해보자고 하니 까 내부적으로 논의되었다고 주구장창 머무지를 않나, 문제있다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니까 논쟁은 뒷전이고 자난 일 들춰서 악감정 고취시키는 예비역들이 있지를 않나, 웃기지도 않는 기사를 실는 신문이 있지를 않나, 논의의 장에 한번도 안나오다가 성명서 발표해서 심사숙고 끝에 철회한다고 했다가 거센 반발이 있으니 바로 철회하지를 않나, 이런 연속코메디는 소통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많은 얘기는 있었지만 제대로 논의된 적은 한번도 없다. 그것은, 논의를 제대로 하고자하는 의의가 없었거나 장이 없었거나 하는 것이 이유일 것이다.

이 코메디를 발생시킨 원인에, 먼저는 선본 내부 소통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선거에 목숨걸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구조도 문제겠지만 그렇다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 역시 문제다. 선거 당시부터 반전평화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계속 말해왔던 '우리PNU (전학협)'선본이 자가당착적인 예비군차량 및 도시락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에 대해 말이 많았다. (그것도 만지) 그리고 선본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에 선본 내에서 충분히 얘기가 되었다면, 이런 공약이 애초부터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선거라는 장은 누가 더 나은 정치적 지향을 '발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지향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가'를 공약을 통해 검증받는 자리다. 정치적으로 A를 지향한다고 말하자면, 공약을 B로 낸다면 그 단계를 어떻게 판단해야할까. 무지에 의한 잘못도 (동정의 여지는 있지만) 잘못이다. 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이 좀더 성실하고 개방적이며 치열한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공약을 냈으면 한다. 그리고 선거의 당락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지금의 구조를 바꾸는 것도 불어날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선거시기에 공론의 장 부재도 한몫을 했다. 일차적으로는 언론의 책임이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리는 분위기와 선거에 대한 정색을 집중하고 이슈를 생산할 여량이 부족한 것이 이유일 것이다. 언론사는 선거시기 공론의 장을 만들고, 몇 번에 걸친 토론회를 조직하고, 제대로 된 공약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알려면서 선거시기에 올바른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지난해의 '언론사 공개 토론회'와 같은 행사를 수정·발전시켜 선거에 올바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사실, 작년에는 영 어설프었으나 소중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거에 무슨 말을 하건 당선된 되면 뭇이라는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당선 이후에도 공약이행 여부를 살펴 공약 이행을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이후의 논의의 과정이 비박거린 것도 꼽을 수 있다. 중운위의 미흡한 대응과 자유계사관의 신만한 논쟁을 포함한 모든 활동들이, 사실, 자유계사관이란 곳은 소통의 가능성이 사실 작다(적어도 우리학교 자계의 경우). 이슈의 공감은 잘 되지만, 천천히 논의를 펼쳐가야 하는 한계가 많다. 자유계사관의 논의들을 진행하면서 오프라인에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함께 가졌으면 한결 많은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 총학내부에서 논의과정을 가진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논의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 아쉬움일뿐더러, 입장이 정해졌다면 그 입장으로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면 적어도 일방적이라는 비판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총학은 몇번의 성명을 내었고, 철회를 한다고 말한 뒤의 예상치 못한 격한 반응들에 사과와 정책투표를 제안했다. 참여도도 신뢰도도 의심스러운 정책투표에 따르겠다고 말함으로써 얻은 것은 의사수렴을 한다는 제스처를 통해 비난을 물리는 것이고(물론, 책임회피와) 또 한번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제진을 막는 것이었다. 총학생회가 정말로 공약을 철회하려 했다면 총학생회의 현재인식과 실행상의 난점과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의 비전을 제시하며, 토론회를 하고, 설득작업을 마련해야 했었다.

숨고르기

성명발표로 그리고 뒤이은 정책투표 제안(정말 제안일까)으로 총여가 제안한 토론회는 무산이 되었고, 대신 총여에서는 군대와 예비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한총구 교수를 초빙하여 6월 2일 (병영사회, 달영을 줌꾸다)는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은 군대가 국가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거대한 훈육조직이라는 지적과 현재의 군대 개편의 문제점, 그리고 예비군 제도의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시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약 80명의 사람들이 모여앉아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차분하게 강연을 들었다. 그중 마지막 질문과 답이 포인트로 생각하므로 여기 옮겨보겠다. '현재 우리학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예비군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런 공약은 밑거름 나누고 막걸리 파주는 선거와 다를 바가 없다. 학생회 차원에서 할 일은 이런 일들이 아니라 예비군 폐지를 바라는 예비역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활동을 조직하는 것과 예비역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학생사회에서 예비군 폐지 운동을 시작해야하며, 여성들도 군대에 더 많은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깊이 음미해야 할 주장이다. 강연이 끝나고 누군가가 자유계사관에 총여분 수고했다고, 강연 잘 들었다고 올려주었을 때 참 뿌듯했다. 앞으로 함께 예비군 제도와 군제도의 모순을 함께 고쳐나갈 수 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과정들이 해소된다면, 다시 이런 코메디는 일어나지 않겠지. 물론 다른 버전으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설마 이번과 같은 식으로 그렇지 않았겠지.'



예비역과 군제대 복학생

글 강동 abckh@freecat.com

우리 사회에는 군대용어가 참 많이도 사용된다. 대학가라고 예외일수는 없다. 군대를 다녀오는 나이와 맞물려 있어 더 많으면 많을지. 밥맛, 자갈고, 살길라네, 예비역, 현역, 신고식, 한바퀴, 자계전투 등등은 어느 누가 일상어가 되어버린 단어들이다.

군제대 복학생을 보고 손쉽게 '예비역'이라 부른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따라붙는 단어 '현역'. 이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과 군대를 갈 일없는 사람들과 (총대기때) 재수용 안한 사람들과 동등하게 일하는 위대한인 말이다. 군대라고는 고등학교 때 일일군대체험인가하는 프로그램 강제참가로 인해 막 한번 가보았고, 타지에서 언뜻 피치는 것을 본 일밖에 없는 내가, 소위 '현역'이라니 웃기지 않은가. 군대에는 문외에도 가지 않은 아학생조차 '현역'으로 분류되는, 군대문화에 참여했던 대학이.

용어들이 흔해져서 쓰이고 있으니 예비역-군제대복학생들이 아라라리할 수밖에. 이번 '예비군 차량 및 도시락 지원'에 관한 논쟁은 예비역과 군제대 복학생의 개념구분에 실재해서 더 큰 파장을 일으키는 듯하다. 예비역은 학생도 아닌가, 라고 물음을 토해낸 많은 분들께, 부산대 학생들 일부는 예비역이었지만, 이제 예비역이 학생이었습니까. 예비군 훈련 귀찮은지 심한 이해하지만, 예비군 차량지원을 학교에서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총학에서 파꾸구 한다고 해도 할말하게 가질까사나지요.

부대신문, 왜 이렇게 오만한가?

부대신문 5월 26일자 예비군 차량지원에 관한 칼럼에 부쳐

글: 벨리 ddosy@freelcal.com

부대신문 5월 26일자 때때로 쓴 한림원 <여성들의 여성운동은 끝났다>를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안그래도 부산대 자계상근예비군들의 끈질긴 스테미너를 지켜보면서 도무지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 공간의 글을 읽으면서 안타까움 -> 분노 -> 한심함 -> 어딘갈지, 내 단계의 감정변화를 겪고 있던 터. 부대신문의 그 글은 부산대 여성주의자의 희망의 숨결을 생매장시키기에 충분한 글이었다. 어찌 이리 오만한가? 어찌 이리 생각이 없는가? 도대체 무얼 하자는 걸까?

주로 부산대 여성주의자들의 표현방식을 놓고 너무나도 심각하게 문제시하며 성토했고 있는데, 그녀의 성토논리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총여학생회의 문제제기 방식이 월장의 그것과 닮아있다. 쏘아지는 반대표 속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의문이다. 총여는 스스로 고립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웃긴다. 월장 편집인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봐도 이번 총여학생회의 문제제기는 월장의 그것과 한치의 닮은 것이 없다. 월장의 글이 그렇게 온건했던가? 그렇게 약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총여는 인사공직성의 시답잖은 글에는 대꾸도 하지 않았으며, 말을 최소한으로 아껴서 말했다. (그런 글들에 일일이 대꾸할 시간도 없었다.) 이번 총여의 문제제기 방식은 온건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오죽 심심했으면 자계상근예비군들에서 관심을 끄시고 일력 숙면에 취하실 정도였다. 때때로 예비군지원 관련한 자계의 글을 다 읽어봤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때때로처럼 "총여는 상공했다"며 비아냥댔던 적 한번도 없다. 다시 확인해보라.

2. 쏘아지는 반대표 속에서 무엇을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것이 여성운동이라면 오히려 싫다.

그리고, 반대표가 오르는 것의 맛을 총여에 전가할 수 있는가? 동성애를 인정하지는 글이 올랐는데, 반대표가 세워지면, 그것은 동성애자들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동성애라면 오히려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문맥 논리 하나도 안맞는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하기 바란다. 이화장이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 이화장이 가장 옳은 대통령후보라는 말인가? 게다가 신빙성있는 설문도 아닌 자계 반대표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이 부산대 언론이라면 오히려 없는 게 낫다. 기사를 쓸 때는 제발 정신차리시길.

3. 여자 남자의 불평등과 성차별 해결은 여자, 남자 공동의 과제이다.

맞는 말씀이다. 그러나 여자 중에서도 여성운동 안하는 여자 있고, 남자 중에서도 여성운동 안하는 남자 많다. 작년에 여성단체 최초 남성상근자가 나왔다. 공통의 과제인데, 왜 그 마을에서 남자가 극히 적은가? 분명, 남성들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군가산점 폐지 운동을 하면 사이비테러를 하고, 성폭력사건을 해결하다가 공대남학생들의 물리적 폭력을 당하는 것(울산대 총여학생회)이다. 가부장제가 그렇게 허술한 이데올로기로 보이는가? 남녀 모두 상처받고 고통받는 아무에게도 이득이 없는 것이라면 왜 하루빨리 안없어지고 여대생들만 남아있는가?

왜 그들이 여자랑 똑같이 상처받고 있다면 스스로 여성주의 모임을 만들어 보든가. 총여가 싫으면 대안적인 단체를 만들면 될 일이다. 총여에 소모임 지원금도 있으니 만들려다. 그런데 왜 안만드는가? 그들에게는 이 운동이 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즉위서 개줄테니 말이다.

그 소리 노동운동하는 사람한테 해봐라.

"노동자와 자본가의 불평등과 차별 해결은 노동자와 자본가 공동의 과제이다. 노동운동을 하려면 노동자만이 노동운동을 한다는 사고를 버려야하지 않을까? 노동자와 자본가가 공존하며 살아가는 현실세계에서 노동문제는 노동자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분명 욕먹을 소리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할 사람은 노동운동하는 노동자나, 여성운동하는 여성이 아니다. 자본가와 남성에게 말하라.

말하면 여성운동하는 건 참으로 쉬운 일이다. 취재하지 않고 기사 쓰는 것도 참으로 쉬운 일이다. 선임견에 찾아 아무런 반성없이 기사 쓰는 것도 참으로 쉬운 일이다. 그러나 자신이 쓴 글에 책임을 지고 독자와 소통의 여자를 남겨두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적어도 부대신문을 기준으로 본다면 말이다. 작년 한림원 글에 대해 월장이 비판했을 때 침묵했던 여러분, 또 다시 글 써질러놓고 침묵하지 않길 바란다. 다시 말하지만, 조선일보처럼 '아님말고' 식의 기사를 부대신문에서 읽고 싶지 않다.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부대신문이여 알아먹으시겠나?

PS. 어울슬이란 동아리 나도 기억한다. 총여에 한번씩 짐 갖다놓으러 오던 사람들을 기억한다. 아마 지금 당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래도 여자보다 남자들이 팔 팔치 참여하면 그렇게 보기가 좋은가? 여성운동판에 여자들만 설치면 끝보기 싫고, 남자가 끼여있으면 모습이 보기 좋은가? 이진도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인지. "근데, 부대신문에는 남자가 왜 그렇게 없나? 보기 안좋다." 이런 소리하면 기분 좋겠는가? 정 답답하면 학내 언론과 운동단체에 할당제라도 만들어봐라.

The women's News

여성주의 웹진 '일다' 창간!

'여성신문'의 기자로 있던 조아름씨가 여성주의 언론에 새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성신문의 이계경 사장이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이에 반대한 조아름씨가 '여성신문'을 나와 웹진 '일다'를 창간한 것인데요. 이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주로 이루어지던 여성주의 언론 내에서 신선한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이버 여성주의 언론매체 '일다'는 순우리말로 '아무어자다, 되다'의 의미라고 하는데요, 여성과 소수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인권과 평화를 지켜내는 인권 전문 매체를 목표로 합니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모든 편견에 대항하여 '일다'는 인권을 지키는 여성주의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들은 여성주의 담론이 몇몇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독자와 함께 논쟁적이고 발전적인 여성주의 언론으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웹진 '일다'는 이슈/기획/언론비평/문화 읽기/성소수자/여성운동, 다이어리/인터뷰/블로그리스트/공개수배/필과성/일다의 방, 여성세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슈와 언론비평, 문화 읽기 등에서는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의 시각에서 본 사회와 문화는 평등하고 편견 없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일다'에서 우리는 사회와 그 속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여성언론의 물결, '일다'에 주목하세요!

'일다' 홈페이지: www.jidaro.com

부산 시의회 '성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

부산 시의회는 지난 4월 15일 1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및 여야 정당, 여성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건의문은 기존의 '윤락행위 방지법'이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방지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은 윤락행위를 사회악의 하나로 보고 그 일소를 위한 차원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을 파는 사람, 상을 사는 사람, 그 중간단계의 포주들을 모두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2002년 9월 여성부가 무용자물이 된 '윤락행위방지법'을 대신할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해서 현재 계류중입니다. '윤락행위방지법'과 새로운 '성매매방지법'의 가장 큰 차이는 중간단계의 포주를 더 엄격히 처벌한다는 것과 포주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신매매 - 감금 - 강간 - 폭행 - 협박 - 위계 - 채무 등으로 인한 경우는 '성매매된 자'로 구분하여 범죄피해자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성매매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형벌 또는 보호처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유연하게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성매매방지법'은 '윤락행위방지법'이 가진 평행행위처벌의 불합리성을 어느 정도 개선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매매방지법'이 통과되어 피해여성들이 처벌되는 일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살림 '성매매 실태조사' 예정

부산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 '살림'을 아십니까? 살림은 성매매로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들을 구조하고, 우리 사회의 성매매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한월동 한강지원과 상담활동을 하였던 살림에서 지난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살림은 성매매 실태조사 자원활동가를 교육·육성하고,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문헌조사, 사전조사, 지역실태조사를 통해 성매매

의 실태를 알아봅니다. 자원활동가 교육에서는 여성인권과 성매매, 성매매의 실태부터 성매매 현장구조의 구체적 방법까지, 성매매에 대해 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성매매 실태조사는 성매매지도그리기, 집결지 전수 조사, 상업지 및 기업형 성매매 업소 표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산의 성매매 실태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얻게 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성매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고, 이번 방향뜻깊은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살림으로 오세요!

일정!

6/23 ~ 6/27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7/1 ~ 9/5 사전조사 및 지역실태조사

9/8 ~ 11/28 실태조사 분석 및 정책대안 마련, 보고, 토론회

홈페이지 wom-servivors.org

전화 051-257-8297(상담) 051-247-8292(사무)

'여대생을 위한 취업강연회' 실시

지난 4월 말부터 총여학생회와 부산대 여성연구소에서 주최한 '취업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취업강연회에서는 취업기술 향상을 위한 전략특강과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기 특강이 있었는데요. 표경희씨가 강의하신 취업기술 향상을 위한 전략특강에서는 대학생들과 경력개발, 입사서류 작성법과 성공 면접 전략, 면접 클라리(원하는 분)을 하였습니다. 경기 특강에서는 카피라이터, 회계사, 번역사, 외국계 회사, 대우 일렉트로닉스 홍보팀 과장, 노무사, 컨벤션 기획사, 관세사 등의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실질적인 취업과 직장 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직업을 가진 분들의 강의는 그 직종에 취업하려는 여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취업은 끝업을 앞둔 분야라면 누구나 고민일텐데요. '여대생을 위한 취업강연회'에서 좋은 정보와 사회생활의 경험들을 많이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백병원 여성 기혼간호사, 어이없는 사직강요당해

백병원에서 23년을 근무해온 여성 기혼 간호사 전승란(만 45세)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사직서를 받아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전승란씨는 1993년 1월 12일부터 8년 4개월이나 야간근무를 해왔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전승란씨가 추가수당을 받기 위해 요구했고, 수간호사로 승진시켜주는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승란씨는 개인적인 사정(3살, 2살의 아이가 둘 있으며, 장기간 야간근무로 30대부터 월경이 사라지고, 근무하는 사무실에 냉난방시설이 되지 않아 천식이 악화되는 등)이 급박하여, 수없이 근무시간을 바꿔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한 수간호사 역시 승진 시험을 통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당한 야간근무는 2001년에 노조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와 야간근로의 예로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해서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윤급실에서 일하던 중 2002년 병원 측에서 '경양이 어려우니 사직하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부당하여 사직에 응하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병원은 끝없는 화유와 협박을 하여, 피해자는 2개월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을 정도가 되었는데요. 병원 측이 말하는 사직건의 이유는 '장기간 야간근무로 무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모범사원으로 뽑혔을 정도로 성실하게 일했고 8년간을 밤낮을 바꾸어 파다노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피해자는 계속되는 사직강요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에 동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피해자는 부당한 병원 측의 사직강요에 대한 사과와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사구팽'이라고 했던가요? 인제대 백병원은 '인간은 사냥개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글: 평상심 ccs44@freelcal.com

졸업, 취업과 결혼 사이!

글 동종 jara@pnuherstory.com

보드게임 중에 'LIFE'라는 게임이 있다.

주사위를 굴려 전진해가며 한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보는 게임이다.

대학에 가느냐, 안 가느냐에서부터 인생의 갈림길은 시작되며

그 결정에 따라서 선택의 폭은 좁혀진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결혼은 강제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모든 플레이어들이 반드시 꼭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모형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날 때 딸이면 분홍색 말을 쫓고 아들이면 파란색 말을 쫓는다.

그리고 인생이란 그런 거지, 라고 말한다. 인생이란 정말 그런 걸까?

그냥 결혼이나 해버릴까?

내 나이 어느덧 스물 셋, 이제 졸업을 앞두고 구멍난 학점 땀점하느라 아등바등거리고 있다. 졸업반이라는 말보다 취업반이라는 말이 더 실감나는 것은 어쩔 수 없나보다. 친한 친구들과 과 동기들은 저마다 공무원이며, 교직을 준비하고 있고, 주변에서 토익공부와 자격증공부 한다는 소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막상 취업을 생각하면 막막하다. 워낙에 돈 안되는 인문대, 공과는라는 별명이 붙은 우리 과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대생에게 있어 취업의 현실이란 그야말로 가혹함 그 자체이다. 닥타가 바늘구멍 뚫기라는 고리타분한 속담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나는 결혼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결심했던 사람이다.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데에 친구들과 어머니만한 역수를 내기하기도 하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결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꿈꾸었다. 한번도 가사일과 육아를 도맡아서 시댁과 남편과 함께 살아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물론 만약 그렇게 산다면 아주 못 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끝끝내 자유의 피가 흐르고 약아살이 끼어서 가장이라는 곳을 박차고 나가진 않으면 못사는 생활도 아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결혼이라는 것이 또다른 삶의 선택으로 내게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는 나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있고, 지금의 연애를 해어지거나 결혼하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마무리지를 뽐족한 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나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결혼을 비판하고, 언마의 힘든 삶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게다가 1학년부터 등에 얹혀왔던 취업과 독립이라는 무게가 4학년이 된 순간 숨을 쉬는 순간순간마다 턱하니 막혀오는 듯한 느낌을 들 때면, 그냥 결혼이나 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솟아오른다.

나의 경우에만 비추어보더라도 오늘날의 나를 비롯한 비혼 여성들이 왜 결혼을 생각하는가에 대해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첫 번째는 가정으로부터의 탈주이다. 독립을 꿈꾸는 한 수단으로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기 때문에 동거든, 연애든 그 이상의 끝에는 언제나 결혼이라는 절차가 있다. 세 번째는 취업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자기 독립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다. 나 역시 이 세가지 중 어느 것도 예외가 아니다.

결혼 그리고 가정으로의 취업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은 해가 갈수록 더 낮아져간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여건과 취업 상황은 불안정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 인구의 70%가 비정규직인데 그 중에 80%가 여성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여성의 취업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게다가 고학력 실업자수의 증가에 따라서 여대생의 취업률은 딱딱하기만 할 뿐이다. 부산대의 경우만 하더라도 여대생의 취업률은 50% 안팎을 겨우 오가고 있다. (실질취업률을 따져본다면 이 수치는 훨씬 더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자기 한 사람의 생계를 책임질 정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비참함과 곤궁함으로만 안상이 될 뿐인 것이다.

한 후배의 아는 언니가 어느 부잣집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원래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었고, 거의 집안과 집안끼리 결정된 문제여서 불행한 표정을 짓던 그 언니는 어느 순간부터 시댁의 재산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다. 결혼이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게다가 당장에 해결된 경제적인 문제와 독립, 그리고 앞으로 시댁과 남편의 재산으로 편안하게 살 궁리를 하다보면 그 언니의 입장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혼은 가정으로의 또다른 형태의 취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살림의 문제는 아직까지도 그 가치가 지나치게 폄하되고 있다. 다시, 가정으로 라는 모든 아래 가정적이고 착한 남편상이 메스컴에서 많이 그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가사노동 및 육아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흔들림이 없다. 군대문제를 두고 논쟁을 할 때에도 여성의 출산에 대해 언급하면 그게 당연한 거지 왜 군대와 비교하냐는 목소리가 어김없이 흘러나온다.

그 뿐인가. 결혼은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이 달라진다면

비혼 미혼(未婚)이라는 것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워킹맘 남편을 따라 아직 죽지 못했다는 뜻의 미망인과 비슷하게 들린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미혼(未婚)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 말 아닐까? 처음에 말한 LIFE라는 보드게임에서처럼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미와 통할까.

결혼에 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이것은 가사노동과 육아를 남편이 하고,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여성이 아내가 담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혼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이 희생과 포기를 강요당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밀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역할 바꾸기의 문제가 남편과 나, 혹은 아이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남편의 부모와 친척과 형제, 나와 나의 부모와 친척과 형제에게까지 소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힘들다.

결혼, 선택의 기로에서다

가족이라는 제도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흔드는 것이 말처럼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2002년에 이미 40%를 넘어섰다. 이는 우리나라 결혼 제도가 얼마나 삐걱거리는가를 여실히 드러내어주는 통계수치이다. 물론 최근에는 동거와, 독신과, 이혼과 다양한 형태의 결합과 관계가 우리 사회에서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형성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막상 동거나 독신, 이혼이나의 자식의 경우가 되었을 때는 이와 같은 행태를 아주 특수하고 유별난 일로 치부하면서 한쪽으로 밀쳐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굳이 사랑과 전쟁이라는 TV프로그램의 제목을 따오지 않더라도 지금, 결혼은 여성에게 너무나 오래묵은 전쟁이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가서 '제도를 넘어 보려'는 시도가 부디 성공하길 바라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는 회의적이다. 취업이 막막한 오늘의 우리들에게 있어 결혼은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없다는 것 오히려 실제로 사회에 나가보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나의 사생활과 직업을 감아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시 결혼생활과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현장을 얼마든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와 같이 졸업을 앞두고 있는 많은 여학생들의 머릿속에는 학교 밖을 떠나서 행복하게 살아갈 궁리로 가득차 있을 것이다. 총여학생회와 여성연구소에서 주최한 취업강연회를 찾아온 여학생들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자기만의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여성의 취업이란, 앞으로 닥쳐올 결혼 앞에서 조금 더 유예기간을 얻는 정도로 생각할 뿐이다. 결혼이 다른 수많은 직업 중에 자신의 적성을 찾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파이팅이다!

웨딩드레스를 벗어던진 우리의 무리엘

글 동종 jara@pnuherstory.com

ABBA의 노래가 시종일관 흐르는 호주의 명랑한 영화 <무리엘의 웨딩>은 결혼이라는 인생의 과제를 앞둔 여성들이 시끄러운 세상을 시원하게 견어차는 기분을 맛보게 할 영화이다. 눈부시고 화창한 날에, 친구의 결혼식날 우연하게 무대를 받아버린 무리엘은 기쁨에 도취되어 환호성을 지르지만 주변의 친구들은 만발을 준다. 그 무대는 무리엘의 것이 아니라 원래 다른 주인이 있는 것이라고 무례조차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힘든 땀방울과 땀방울 무리엘은 어디를 가나 천덕꾸러기이다. 집안의 권위적인 가장인 아버지와 간담중에서 사달리는 어머니, 백수의 초절정을 보여주는 오빠, 엄격한 여동생이 있는 가정 안에서 그렇다. 게다가 결혼이 삶의 목표이고 자신들이야말로 결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는 대단한 공주병 친구들은 무리엘을 자신들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장식처럼 데리고 다닌다. 때문에 그녀는 언제나 ABBA의 노래 속에서만 자신감 넘치고 멋진 삶을 살아갈 자신을 꿈꾸곤 한다.

그러던 그녀가 사고를 크게 친다. 집에는 몰래 돈을 타내어 친구들을 따라 휴양지까지 따라간 무리엘은 친구들에게는 가부를 당하고 우연히 같은 고교를 중퇴했던 본디를 만나게 된다. 자신을 왕자시였던 친구들에게도 복수하고 본디와 함께 삶의 즐거움을 맛본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백자수표를 가지고 그대로 달아나버린다. 무리엘은 본디와 함께 시드니에서 무리엘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듯하다. 그녀를 흠모하는 남자가 생기고, 친구와 유쾌하게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그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하다. 갑작스런 본디의 병으로 삶에 그림자가 드리우지만, 그녀는 그곳이 자신이 결혼을 할 수 있게 될 날을 꿈꾼다. 그녀의 유일한 기쁨이던 웨딩 샵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는 일이다.

마침내, (미국 워싱턴이긴 하지만) 꿈같은 상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무리엘. 새미도 몰라보고 친구도 의연하며 시종일관 즐겁기만 한 그녀가 이제 알뜰히도 한테, 그러나 잘생기고 잘나가는 신랑과의 결혼생활이 자신에게 최고의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 믿었던 무리엘은 점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결혼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던 무리엘은 다시 천덕꾸러기 무리엘로 돌아온다. 그리고 휠체어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본디의 집으로 돌아간다.

<무리엘의 웨딩>은 다시 영화 밖으로 걸어나와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든다. 영화 속에서 수많은 여성들은 여성으로서의 자기가치를 '결혼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찾는다. 무리엘도 예외는 아니었다. 결혼만이 삶의 목표였으며, 자신의 삶을 정당하게 살 수 있는 수단으로서 결혼을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 역시도 예외는 아닐지 모르다. 막막한 미래에 대한 도피, 가정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수단,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지 않고 멋있게 살 수 있는 수단으로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무리엘은 우리에게 그것이 대답이 아니라고 말한다. 물론 언젠가 무리엘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친구와 함께 차에 올라타서 '도시의 안락'을 외치는 무리엘은 아직 자기를 완전히 알지 못했다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무리엘의 유쾌한 발걸음을 함께 따라가보아도 좋을 듯하다.

무리엘, 당신은 정말 멋진 여자야!

결혼에 관해 알고 싶은 두세가지 것들!

나의 삶 중의 하나였던 이혼이야기



살. 저는 대학생인 딸이 하나와 고등학생인 아들이 있는 이혼녀입니다. 딸이 중학교를 다니던 때에 남편과 이혼을 한 이후, 아이들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

은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우며 살아 나가기에는 너무도 냉랭하고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보다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저희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이혼, 저는 남편의 계속되는 외도와 가정 폭력에 아이들을 생각하며 참아 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강요로 저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에서 아이들을 빼놓으면 저의 존재가 사라지므로 제가 키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 혼자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생활을 해 나가기에는 세상의 벽과 사람들의 시선은 무섭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외로이 남습니다. 왜 세상은 자식과 홀로 남겨진 나에게 이혼녀라는 낙인과 벽을 쌓아올렸는지, 그리고 차가운 시선을 보냈는지 말이

지요. 결혼, 저 또한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처럼, 저의 딸처럼, 꿈 많고 청춘의 소녀였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사랑이 전부인 줄 알고 다니던 화사를 그만두고 결혼을 했습니

다.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놓은 좋은 엄마, 좋은 부인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노력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결혼은 또 다른 행복의 시작이라 생각했었지요. 그러나 둘째 아이를 낳고 시작된 남편의 외도 그리고, 신혼 때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력에 전 무너져 내

렸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의 사과를 끝까지 받아 들였고, 그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말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 이상 저의 존재는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좋은 엄마, 좋은 부인

의 이상은 저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단지 좋은 엄마, 부인 일뿐... 저라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끝내 시어머니의 이혼 강요로 전 남편과 갈라섰습니

다. 이혼에도 저의 존재는 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작품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행복했습니다. 비록 이혼 후의 일이 딱딱할 자라도 자애로운 사람의 남편, 머

느리에서 벗어나 나만의 존재가 세상에 홀로 서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자가, 이혼녀가 살아나가기에는 부단히도 저를 강하게

단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남편의 성으로 인해, 호적으로 인해 여전히 그 사람의 자식으로, 전로서상 동거인일 뿐이기에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현재 전 행복합니다. 남편의 외도에 피로하고 폭력에 아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건 제 자신을 찾았다는 것, 엄마이기 이전에 제 자신을 믿어 준

제 동거인들 딸이와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식들을 안고 홀로 서기가 지 너무도 힘든 날들이었지만, (물론의 나이에 특별한 기술 없이 생활을 책임진다는 것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모아는 재산이 있었지만, 친구와 동업의 실패로 친구와 재산을 다 날리고 아이들과 저, 뽕뽕이 흩어져서 몇 년간 삶이 식당 일, 청소 등을 하였고 현재는 아이들과 함께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힘들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혼녀라는 말에 주목할

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엄마보다는 이혼녀라는 말이 더 감정이

깁니다. 이혼녀라는 말 덕분에 힘들었지만 다시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고, 앞으로

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좀 더 일찍 저를 찾

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혼을 일찍 하지 못했던 것 말이지요. 아마 전 행복한 가정과 결혼이라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을 계속해서 잡으려 했기에 일찍 하

지 못했던 것 같아요. 덧붙여 바램이 있다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았으

면 하네요. 그리고 이혼은 여성에게 전혀 흠이 될 것도 없으며, 이혼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실패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하네요. 인생의 성공이자 도박자가

결혼이 아니듯이 이혼이 인생의 실패이자 끝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무엇보다 소중한

전 부모님도, (현재 혹은 미래의) 남편도, 자식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을 인생을 소중하게 꾸려갔으면 합니다. (노래가사였던가

~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것, 행복하세요.)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타인을 위한 삶은 나 자신을 버리는

한 자유주의자의 독신예찬론



독신에 관한 글의 서두로는 뜬금없지만, 나는 벌써 5년째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만

사에 딱딱하게 집착하는 자유주의자이자 개인주의자인 나와 달리 여자친구는 평범한 삶을 꿈꾸는 보통 사람 중의 한 명이다.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는 일

이지만, 여자친구는 우리의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면 언젠가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그 생각에 그다지 반대하지 않는다. 언젠가 원하면 헤어질 수 있

다는 전제하에서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내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 벌써 결

혼 비스무리한 말이 나와 버렸는데, 그러니까 나의 독신은 그거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바라보면 요란한 동거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단

순히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사는 것이 동거라면, 결혼은 같이 산다는 것을 만방에

고사하고 시작하는 동거다. 덧붙여 혼인신고라는 것을 통해 그들의 계약에 법적 구속

력까지 추가하는, 뭐 그런 것이 결혼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독신이란 넓게 볼 때,

그런 식의 잡다한 사회 제도에 구애 받지 않는 삶을 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

과 독신을 마치 반대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그런 생각들이 잘못되었다

고 생각한다. 독신은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택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것이다. 그런 삶을 가리켜 독신이라고 한다면, 그 독신은 오

히려 더 결혼에 집착하는 삶이 될 것이다. 한 개인이 '결혼'이란 이 사회에서 제도로

서 존재하는 관습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나면, 그에게 그가 결혼을 하고, 하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결혼이라는 제도로부터 자유로워진 삶, 바로 그런 삶이

진정한 독신 아니겠는가?

독신과 관련해 조금은 자부한 이야기를 하나만 해보자. 왕년에 어떤 독목해하는 자가

말하길 인간은 누구나 혼자라고 했다. 근데 또 반대로 역시 독목해하는 다른 자가 인

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다. 그런데 언뜻 정면대로 보이는 이 두 명제가 사실은 그

렇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는가? 독신의 삶은 바로 이 두 명제가 만

나는 자정에서 출발한다. 상상력이 부족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을 위해 좀더 쉬

운 예를 한 번 들어보자.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서정시인의 대언단(대) 테스트를

시집 '홍로서기'를 보면 시인은 인간의 삶이란 '홍로선'을 이가 만나 사랑하는 것 이

라고 했다. 독신이란 것도 죽어도 혼자 죽겠다는 식의 무대포정신으로 뽕뽕 무정한 그

런 종류의 삶이 결코 아니다. 홀로 서서 자유롭게 서로에게 구애받지 않으며 사랑하고

살려는 삶이 독신인 것이다.

독신의 삶에서는 같이 살을 꾸려나가는 상대방이 남자인 여자든 그리 중요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나는 마음이 아주 잘 맞는 동성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상대방이 이성친구여도 관계없고 연인이어도 관계없다. 또 혼자

살아가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도 해본다. 다만 누구와 같이 살게 되든

라도,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최대한 배려해 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보

면 우리네 결혼은 너무 서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물론 여기서 말하

는 자유는 박진영이 방송에서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세스의 자유만을 이야기하는 것

이 아니다. 그런 육체적 영역의 자유는 물론이지나와 그것보다 정신적 영역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결혼을 꿈꿔본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버리는 순간, 내가 말하는 결

혼은 결혼이 아니게 된다. 우리사회에서 결혼은 아무리 좋게 바라봐도 김중성의 노래

처럼 '아름다운 구속'에 불과하다. 어쩌겠는가, 암만 노력해도 구속이 아름답게 보이

결합는 나로서는 내 식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아름다운 구속보다는 고독한 자유가 좋

아서 나는 독신을 꿈꾼다. 아니 자유로워지는 삶을 꿈꾼다.

잡다한 이야기로 글을 끝맺으려나? 편지 조금 껴넣는 기분이다. 좀 더 진지한

이야기를 머지않아 덧붙여보자. 결혼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는가? 사실 결혼은 사

람들이 쉽게 생각하듯, 사랑하는 사람끼리 평생 같이 살 것을 맹세하는 아름다운 약

속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은 계약이며,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고, 이 사회로 편

입되는 최후의 사회화 과정이다. 결혼을 함으로써 한 개인은 사회의 완전한 일부로서

완전히 동화된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어머니, 아버지의 경우를 생각해봐라. 결혼

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묶이고, 자식을 낳음으로써 꺾을 수 없는 책임에 휘말리

게 된 것이 아닌가? 좀더 쉽게 생각해봐라. 사회가 개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라. 사회는 당신이 그냥 그렇게 결혼해서 살다면 애 셋씩 낳고 조용히 살아가

다 시라주기를 원한다. 솔직해져보자. 사회가 당신에게 무슨 커다란 변혁을 기대하

고 있는가? 나란 놈은 성격상 누군가가 나를 어떤 식으로 구속하려하면 더욱 뼈들어

지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뼈들어잡아야말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유다. 당신은

심중판구, 그리고 나 역시 말만 근사하게 하고 심중판구, 사회가 그걸로는 트럭을

그다지 비키나지 못하고 죽어 나직해지는 그런 인간이기 십상이겠지만, 아무렴 어떤

가, 나는 인간으로서 자유롭고 싶은걸. 붓다처럼 처자식 버리고 도망가는 길에서 당

신과 눈 마주쳐 서로 마숙해 할 그날을 상상해본다. 도망가고 있는 것이 아닐지 당신

알지 사뭇 기대되는 것이다.

PS. 말장난 같은 글 하나를 쓰고 보니 내 글이 이 사회의 동성애자들을 타자화시키

게 일조한 듯한 생각이 든다. 혹시 내 글이 이 사회의 성적 소수자들에게 고통이 되었

다면 더그렇게 용서해주시길 빈다. 모두 필자의 부족한 탓이다.

내가 바라는 결혼



내 도래는 아직 본격적으로 결혼시장에 뛰어들진 않았

다. 그렇지만, 직장생활을 시작한 녀석들은 결혼이 먼일

같진 않다고 한다. 나 역시도 졸업한 학기 앞두고, 또

나이 차가 꽤나 나는 연인을 만나면서 결혼이란 것이 비근한

미래로 여겨진다. 고등학교 생활, 대학교 생활, 대학입학과 대학시절 아무 생각없이 남들 가는대로

따라가서 후회했던 경험들이 술하게 있는 나로서는, 직업과 결혼은 정말로 제대로 알

아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다.

나는 옛날부터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다. 고등학교 때 친구와 돌려쓰던 일기장을 들

쳐보다 발견했는데, 그대도 일찍 결혼을 하고 싶다고 적었더라. 그땐 낭만적으로

생각하며, 결혼이라는 것을 집에서 탈출하는 합법적인 수단 정도로 생각을 했던 듯 하

다. (그렇다고 내가 딱히 우리집을 싫어하진 않았다. 오히려 동생으로 늘 북적대서 조용

한 곳을 원했던 것일 뿐) 물론 결혼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님을, 탈출이 아니라 더

거대한 굴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임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되었다. 그렇지만 결혼

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딱히 드는 것도 아니다. 내가 결혼에 대한 환상이 많은

건가?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을 하지않겠노라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런 의문에 잠기

기도 했다.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결혼을 그다지 환상적으로 생각하진 않는 것 같

다.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여자에게 훨씬 불리한 것이라는 것, 결혼이 집안의 만남이

라는 것, 결혼 후에는 여성으로서보다 아줌마로서의 위치지워진다는 것, 그리고 결혼

에 있어 여성과 남성에게 적용되는 룰이 다르다는 것 모르진 않으나, 머, 나에게 이런

것들이 피해가지 않을까 혹은 잘 조절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난 지금의 남친과 몇 년 안에 결혼을 하고 싶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

고 결심했어? 라고 집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별로 없다. 부모님의 전생애는 결혼으

로 상처를 받은 많은 친구들에 비해, 비록 경제적으로 형편없지만 그리저러 나쁘지

않은 결혼생활을 영위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결혼은 할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왔었고, 부모님보다는 조금 더 잘 살지 않을까 생각해왔던 배경 하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 결혼

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된 이유라면 이유일까. 그리고 한국남자들 중에는 부모와 의

식적 독립이 된 사람이 별로 없을 뿐더러 가부장적인 사고가 딱딱하게 자리잡고 있는

불행 속에서 남친은 그렇지 않다는 점도 무척 마음에 들었고, 머 그밖에도 그의 멋진

점들은 한도 끝도 없이 많지만, 독자들의 비위와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혹여 왜 이러

게 서둘러서, 라고 물으신다면 그의 나이를 고려한 것이기도 하고 원래 일찍 결혼을

하고 싶은 개인적인 바람도 있었고, 그리고 늦게 한다고 별달리 좋은 것은 없기 때문

이라고 말하고 싶다.

난 결혼을 하기 전에 몇 달이라도 동거를 해보고 싶다. 전에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했

더니 엄마는 사집도 안간 처녀(가) 어떻게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사는 게 말이 되냐고

질질이 날렸지만, 취직을 하고 졸업을 하면 점 가독 써서 도망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다. 남친도 동거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동거기간이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같이 살아도 보지 않고 어떻게 생활을 살 거라고 약속할 수 있겠

는가(옛날보다 이혼이 많아졌지만, 기왕 할 바야 좋은 사람이랑 시행착오 없을 디

좋지 않나). 동거를 통해 적응기간을 거쳐, 결혼할 때는 조금 더 잘 살지는 반성도 하

면서 순조로운 결혼생활을 모색해야지..

내가 바라는 결혼생활이란 별게 아니다. 언제나 리브리브한 관계일 수는 없지만, 가

끔은 언제든 때의 기쁨으로 서로를 그리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소박한 집에서 하

루에 적어도 한끼는 같이 먹을 수 있었으면 하고, 함께 있으면 힘이 나는 관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의 일을 존중하고, 일이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고,

서로 배려하고 동등하게 책임을 지는 관계였으면 좋겠다. 식사당반을 돌아가면서 하

고, (자식을 낳는다면) 자식들을 기르는 것도 함께 책임을 지고, 나로서는 소박한 바

람이지만, 아마도 서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저금은 딱히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없다. 아이를 10개월 동안 먹고 있다가 낳으

면 한동안 심각하게 바빠지고 일도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

고, 것보다 더 큰 이유는 인간들이 넘쳐나서 자구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자식을 하나 더 보태는 것이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이를 입양을 해서 길러볼까 생각 한 적도 있다. 그래서 입양 절차를

알아보니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아서 안될 것 같아 입양은 포기하고 있다.

알마 전 이런 말을 하나 올립니다. 내가 남자 김 망칠 일 있다. 그러면 결혼을 해 하느

나라고 말했음을 하셨다. 어쩔 남친의 부모님도, 혹은 남친조차도 엄마와 같은 생각일

수도 있겠다. 비록 남친은 신부님(가)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러면

어찌자? 뭐,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다.

아, 그런데, 결혼 자체를 해하고 살라는 질문을 빠뜨린 것 같다. 험험, 다시 돌아와서,

나는 인간이 혼자 살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외롭기 때문에, 주변에 뜻이 맞는 사람들

과 공동체를 꾸려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근데 나는 왜 결혼이냐고 아

마 사회가 그어놓은 선을 벗어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의 요구를 정면으

로 부딪히며 결혼을 피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한편으로 그와 나의 관계를 인정받고

살다는 욕구도 있다. 그의 사회에 내가 편입되고 또 나의 사회에 그를 편입시켜, 가정

의 대소사를 함께 나눌 자격을 얻고 싶은. 비용이 만만찮을 욕구도, 그리고 비록 서류

한 장에 불과할지라도 조금 더 안정된 관계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아,

물론 안정이 시작되면 권태가 밀려올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좀 경계해야겠지만),

지금까지 결혼에 관한 나의 혼자 생각들이다. 직업을 갖고 졸업을 하면,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주위 사람들과 더 많이 나누며 그 상이 점점 더 구체화되었지. 그러면 많이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하나 배우자가 될 사람과의 상의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 결혼의 시가나, 임신과 육아문제, 가족관계, 그리고 결혼 이후의 삶 등등

을, 요새 결혼생활의 부대일과 바람 피는 이야기,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를 종종 듣는다. 결혼자체가 둘의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드

러내는 것 같다. 가능하면 이런 일들이 나의 결혼생활을 비껴갔으면 좋겠고, 또 노력

을 할 것이다.

나는 결혼이 너무나 일상적이길, 그렇지만 더러 멀리기를 기대한다. 결혼을 후에도

서로 건강을 잃지 않으며, 결혼생활이 한결같았으면 한다. 서로 존중하면서 각자의

일을 하면서, 즐거운 일도 나누고, 고된 일들도 함께 견디며 삶을 살고 싶다. 무엇보다도,

나는 이 사람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함께 늙어갈 것이다.

대찬 여자들의 담담한 이야기 | 나의 결혼, 나의 삶

_아줌마들의 나의 결혼 투쟁기, 혹은 투병기

정리 | 동종 jara@freech.com

함께 이야기하는 이들, 줄마, 파하, 두이(이상은 현재 결혼중)

동동(현재 동거중) 자늑, 바리, 반팍, 고래

고래 | (결혼하신 분들에게) 결혼 몇 년차 되는지?

줄마 | 84년도에 했으니까 결혼 20년차 됐네.

파하 | 그런 거 상주는 거 아니냐(웃음)

두이 | 나는 10년차, 94년도에 했으니까.

파하 | 나는 11년차 되네.

줄마 | (자늑을 가리키며) 여긴 결혼 반대주의자

고래 | 결혼을 반대하시는 이유는?

자늑 | 이제까지 결혼해서 잘사는 줄을 탄 한 명도 본 적 없는 것 같아. 내 기준이 독특해서라기보다 결혼생활엔 면면하게 흘러가는 뭔가가 있는 것 같고 사무실에서 한참 린은 누가 컷을 것인가, 커피는 누가 딸 것인가, 하는 논란 있었는데 해결이 잘 안되잖아. 부부관계에서 가사노동도 비슷한 문제지.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는 디디욱 개조가 잘 안될 거라고 보고, 개조가 된다 해도 그렇게 에너지들을 쏟아붓고 싶지 않고.

줄마 | (비혼인 친구들에게) 근데 결혼들 하고 싶어?

반팍 |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한테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사귀는 걸 보면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리 | 저는 경험할 건 무조건 경험해보자는 주의라서 결혼도 해보고 싶어요.

자늑 | 경험의 댓가가 너무 커요? (웃음)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나

고래 | 결혼을 자기 삶으로 끌어당기게 된 계기들이 있었어?

두이 | 난 삶을 부대끼고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연애하고 있던 사람이나에게 꼭 맞는 건 아니었지만 무난했고, 옛날부터 결혼은 안해도 애는 꼭 낳고 싶다고 생각도 했어.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실제로 대담 자리에 아들내미와 딸내미를 데리고 왔다) 남녀 평등, 가사분담 이런 문제들은 결혼하기 전엔 얘기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결혼을 했지. 요즘엔 젊을 때 치열하지 못했던 게 대가로 돌아오는 게 아닐까 하는데. (웃음)

파하 | 연애를 하던 때는 둘의 관계가 질적일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가 있더라구. 결혼을 해야 한다는 압력들이 들어오는 시기였고, 사귀던 남자가 불행해도 그동안 명맥이 없었어. 사실 그는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어. 그렇지만 남자들에게 별 기대를 안한 면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난리를 부려도 나는 '현명하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유독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딱지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 결혼이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었지. 지금 생각하면 여우굴을 파하려다가 호랑이굴에 들어간 것이지. (웃음)

줄마 | 난 사실 결혼이 어떤 건지 몰랐던 것 같아.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 환상적

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냥 내가 태어난 집에서 독립을 한다는 의미도 있었고, 결혼을 하게 되면 완벽한 만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결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어떤 점이 불리할 것이다. 이런 건 하나도 생각 못했던 것 같아.

나의 결혼식, 혹은 그들만의 결혼식

고래 | 결혼식 때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요.

줄마 | 너무 귀찮았어. 결혼이 정말 특징적인 게 제도잖아. 그걸 다 못 벗어나니까, 간소하게 한다고 했는데 결혼 준비 과정이 정말 가수장스럽더라구. 웨딩드레스 청킹 하고 있는 게 정말 귀찮았어. 혼수 준비한 이불 같은 거 준비해봐도 그걸 누가 덮고 살야?

두이 | 결혼식은 재미있었어. 전통 혼례 했거든. 너무 웃어서 엄마한테 야단맞았어... 그때까지 친했던 애처럼 보였지. 그런데 결혼식 준비할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남편이 무심하더라구. 술 마시고 한번 싸웠는데, 그때 옆에서 때려치워, 이런 생각을 했었지.

파하 | 결혼식은 괜찮았어. 문제는 결혼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일생에 한 번뿐이라는 생각도 없었고, 결혼식날 친구들이 전부 대기실에 왔을 때 떨리나 물어볼 때 안떨린다, 그러니까 너 소주 마시고 왔냐, 그리고 (웃음) 제일 힘있는 사람이 남편의 엄마였기 때문에 결혼식의 모든 걸 다 끌고 갔지. 차나고 나니까 그때 주도권을 다 넘겨줬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 느낀 건 친정엄마가 시댁을 만났는데, 갑자기 아예가 수그러지면서 너무 저자세로 나가는 거야. 나한테는 시어머니가 친구 엄마라고 생각되지 시어머니라고 생각되진 않았거든.

결혼의 before & after

고래 | 결혼하고 나서 제일 달라진 점은 어떤 거예요?

줄마 | 결혼한 지 너무 오래 되어서 요즘 세대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싶네. 그런데 지금도 여대생들이 졸업하면 결혼과 취업을 놓고 갈등을 하나?

고래 | 자기 독립이라든지 취업이 너무 막막하니까 그냥 결혼이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결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줄마 | 그러면 남편한테 귀여이 산다는 말야.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 분명한 대가가 있을 거야.

동동 | 제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해요. 절대 결혼 안하겠다고 친구아저씨도 올해는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일단 결혼 초기니까, 다 좋아하고 인생의 마무리를 지은 듯하고, 특권과식을 가져요. 드디어 나의 안전지대가 생겼다면요. 자기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 땅이 어떻고 시아버지가 어떻고 이렇게 자기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독신일 때의 불안감 같은 게 순간에 날아가는 듯이, 마치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는

듯이 말예요. 그걸 보면 독신인 나도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한 친구들도 평범한 일상보다는 뭔가 달라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파하 | 3년만 지나면 달라질 걸? 우리는 막 결혼한 친구들이 행복하다 그러면 '막 3년만 지나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웃음)

줄마 | 결혼은 독립된 사람이 만나서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나는 사사건건 잘 안되더라구.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도 아닌데, 아주 깊은 곳에서 갑자기 다르지. 처음엔 조금만 양보하면 극복될 것 같아서 이혼을 안했어. 그게 한 십 년 갔던 것 같아. 굉장히 어려웠지. 사실 이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거든. 남편의 억압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문제라면 아주 권력이 낮을 건데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 계속 평행선이다라구. 처음엔 집에서 말을 안해, 젊었을 때는 힘이 있어서 그게 한달은 갔지. 나중에는 귀찮으니까 그만 두게 되는 거야. 이혼하는 것도 '지금 내가 바쁘거든, 한 달 후에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일동 폭소) 가족은 굉장히 정치적인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 서로 보태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고. (웃음)

동동 | 저는 남자친구와 같이 살아요. 혼자 살 때보다 둘이 살 때 진짜 좋거든요. 동거할 때는 그래요. 그런데 부딪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결혼 후에 만약 이런 행동을 보았다면, 부모에 관한 문제나 조그만 생활습관 하나까지도 끔찍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동거를 하니까 조금의 긴장감이 있고, 유사시에 헤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서 조심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씩 양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동거를 계속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결혼제도만 바꾸요.

줄마 | 결혼은 남자가 동등하게 자기의 삶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야. 거기서 정말 용감하게 처니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여자는 거의 없을 거야. 지금은 나도 때때라 해버리는데,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어. 작업 때문에 집에 잘 못 들어가니까 원성이 장난이 아니었거든. 애들이 볼 때까지는 있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부딪치는 거야. 육아 문제가 사회화가 안되니까 그것이 정말 괴롭지.

파하 | 남편이 가정적이고 가족주의자거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가족과 그 사람의 가족은 범위가 다른 것 같아. 나는 내가 결혼하면 남편과 내가 새로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부모님과 내 아내와 아이, 이게 가족인 거야. 처음에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싸웠어.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집에서 빨리 도망쳐 나오려고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내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더라고. 남편은 전혀 그런 걸 생각도 없고, 독립적으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별 매력도 없나봐.

두이 | 결혼 기념일은 이름이 잘못 된 거야(웃음) 그런데 이런 제도를 떠나서 내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때도 결혼을 안하고 싶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 나하고 안 맞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다르지만 결혼하면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 괜찮아질 거라고 말만 잘한다면 결혼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결혼의 정성 - 육아와 살림

줄마 | (두이가 데려온 아이들을 보며) 직장 다니는데도 애를 매일 맡아서 돌보는 거야? 두이 | 남편이 택수일 땐 많이 봐줬는데 최근에 작업이 생기니까 잘 그러지 않아. 나는 직업을 가졌지만 내 일도 제대로 못해가면서 가사일이라든가 육아 문제에 신경을 썼는데, 남편은 그런 일에 책임을 느끼고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않아. 배신감을 많이 느꼈지. 자기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겐 턱도 없지.

동동 | 아무리 청초안하고 살림 안하는 여자도 청초 잘하고 살림 잘하는 남자보다 낫죠. 여자는 가사나 육아 문제의 주체가 되고, 남자는 도와준다고만 생각하니까요.

두이 | 맞아. 어릴 때 자라는 사회적인 환경, 엄마가 해준 것들, 사회적으로 대우받은 게 결코 극복이 안되는 문제지.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실거지도 하고 열심히 한 편이었거든. 애를 낳으면 일이 더 많아지잖아. 그런데 일을 가지고 나니까 가사 일을 완전히 놓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소홀해 보이거든. 나중에는 봐줄 수가 없더라구. 내가 도와줄게, 잘 해줄게 그러지만 도와주진 뭘 도와줘. (웃음) 내가 차시켜주더라구.

파하 | 난 직장이 있다 보니까 아이를 시부모님이 맡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더라구.

고맙긴 한데 좋지만은 않아. 아이의 소유가 완전히 넘어가버리 것처럼 보이고, 나는 아무런 소속감도 없는 거야.

줄마 | 애들의 특성이 할머니에게 맞게 키워지잖아. 애들이 그림을 골라 그리는데 할머니가 환생이라고 딱히 있는 인식 있잖아, 그것 때문에 '그림 그리지 마라' 이러면 애들이 안하게 되잖아.

파하 | 시어머니가 애를 봐 주면 키우는 데 무슨 걱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걸로 볼 때 얘가지. 가슴아픈 기억이, 애가 5개월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날 불러서 애가 누구한테 오냐 내기를 하자고 자꾸 그랬어. 당연히 애가 나한테 안오지. 할머니랑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나는 너무 속이 상한데 어머니는 그게 몇 번씩 하시더라구. 한번은 멀리 이사를 뺐거든. 그런데 아이를 남의 손에 어떻게 맡기냐면서 시부모님이 따라오셨어. 그걸 또 한참 봤지. 그러면서 나의 결혼생활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지.

동동 | 결혼하기 전에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같이 살 거라고 생각안했었나요? 결혼 생활의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시부모님에서 오는 것 같은데.

파하 |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남편의 가치관이 사실은 나한테 더욱 힘들었지. 시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더라도 나와 맞는 해결책을 남편이 가지고 있었다면 문제가 달라졌을 텐데 그렇지 못했잖아.

동동 | 저는 결혼하게 되면 남자친구와 제가 동거일 때 누웠던 물건의 완벽한 생활이 달라지게 될 거봐 무섭기도 해요. 내가 너무 약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남들이 다 저도의 어려움까지 극복하면서 하는 결혼을 내 맘대로 살기 위해서 좋은 것만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늑 | 자기를 포기하고 사는 게 정상상태처럼 되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 결혼하고 나서 애 생기고 나면 내가 이만쯤을 포기했지만 실제로 더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야.

파하 | 가사분담, 육아 같은 문제를 사실 얼마나 공정하게 나누느냐로 해결된다고 생각지 않아. 좀 더 평등하고 진보적인 남자와 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한다 해도 너무 풀기 어려운 문제거든.

줄마 | 유전자에 각인이 된 것 같아. 부인이 나중에는 암마가 되는 거잖아. 총각도 나중 되면 아빠가 되고, 가부장이 이어지는 거고 결혼제도라는 것이 개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아직까지 극복되지 못한 이상적인 가족과 결혼상 있잖아, 그걸 전부 그 안에 가지고 가는 것 같아.

가족 안에서부터의 독립, 왜 이렇게 힘든 걸까?

파하 | 여자들은 가족과의 불화를 겪으면서 컷을 때고 빨리 나오거든. 그런데 남자들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 집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편안한 상태거든. 별로 독립에 관한 의식이 없어. 가족과 독립하지 않는 남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두이 | 난 자랄 때부터 남동생과 나를 관여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했고, 싸움을 잘했어. 결혼하고 나서도 웬만하면 목소리를 낮추는 적이 없는데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남자들은 결혼하고나면 부인과 아이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게 참 건디기가 힘들어. 특별히 문제가 생기기 전까진 강하게 나타나진 않아. 근데 가끔씩 하는 말들 속에 그게 녹아나 있다는 거지.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면 당장 애는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해. 애가 정말 원하는 사람이 카우도둑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안되는 거지. 이걸 내가 깨고 나가겠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감옥인 거지.

파하 |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압박이 아직까지 너무 심한 것 같아. 가족들이 사랑하고 서로 희생해야 되고, 토크한 울타리처럼, 텔레비전에도 나오잖아. 아이를 무뎌둔 남편, 그걸 행복한 듯 쳐다보는 아내, 일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변해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 슬픈 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가정 안에서의 절대행복일 수는 없잖아.

자늑 |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가 불안할 때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더라고. 취직하기 힘들니까, 남들 다 하는 결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하는데. 당장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런데 이혼을 하려는 순간에 돌아보니까 그게 다시 발목을 잡게 되는 거지. 남편은 무기 학을 놓고 그 중에서 고르는데, 여자는 쓸 무기가 없는 거야. 돈도 없어,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진짜 비참해지

잡아, 선택지가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준마 |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결혼생활에서 참아야 되고, 맞추어 살아야 되는 게 많아요. 한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자기 인생과 내면을 억압하는 거니까. 맞춰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였고, 그런 세태들이 아들을 지배하고 있고, 손을 뻗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사어머니가 돼서 안 그럴까 나면 또 그런 건 제대로 배우더라고, 친구들이 엄청 보수적이에요. 맨날 싸우고 우리가 육했던 엄마의 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

결혼 피임!

고래 |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나마 사회 생활이나 자기 생활을 지켜나가는 분들인데, 어떻게 가정 안에서 싸워 왔는지 궁금해요.

두이 | 처음에 사건 때는 잘 몰랐는데 남편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남자였어. 계속 싸우다보니깐 만상이 되더라. 그런데 스스로가 자기검열이 되는 거 있지. 집안일도 생각하고 하면서 나의 일을 점점 축소시켜가게 되는 거야. 말로라도 이혼하자 그러면 그 순간은 무마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더 미치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어. 싸우고 나서 진짜 심각하게 나는 당신이랑 안맞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며칠 뒤에 회사에 장미꽃배달이 온 거야. 10년동안 처음 받아본 꽃배달이었거든. 신혼 초에야 감동했음에도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이 너무 뻔히 보이는 거야. '그래, 조금 다급했나보다' (폭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해결하려는 방식이 아이가 없더라고. (여기까지 말하고 두이는 집에 가자는 아이의 성화에 못이겨 집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자늑 | 아무리 죽어라고 싸워도 사회적 압력과 사회적 기준과 자기 자신의 힘과 뜻속에 흐르는 한계는 어쩔 수 없어. 착한 놈이든 나쁜 놈이든 이진 다 같아. 여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잖아. 싸우는 만큼 지쳐가겠지만 앞에서 보면 조금씩 조금씩 기준에서 밀려 간다는 느낌이 들거든. 누구랑 살면서 10년, 20년을 내내 싸우는 상태, 그러면서 애초에 가졌던 기준이 밀리고, 모욕감 같은 것도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런 상태로 산다는 것은 조금 끔찍한 일이 아닐까 싶어.

준마 | 소통이 안되거든. 소통이 되어도 사람과 사람은 그런 요구가 있잖아. 감동과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결혼과 가족이라는 제도로 묶어놓지. 결혼은 두 사람의 완벽한 결합이 아니라, 제도가 여자들한테 너무나 불리해. 여자가 집안에서 남편 내조를 아주 잘 해주고 아들을 잘 키워주고 그 대가로 있다면 그건 아주 화려한 종이지.

파하 | 인어아가씨.(웃음)

동동 | 그 화려한 종이 우리들의 엄마아빠가 가장 바라는 이상향이 아닐까요.

준마 | 그래, 그런데 그렇게 너무 오래 살아왔던 주부들이 40대, 50대들이 다 살아가면서 허무해서 거의가 다 애인이 있어. (웃음)

자늑 | 사실 결혼이라는 게 요즘 독립을 하는 게 살업률이 높고 자기가 딱히 미래에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욕구가 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위험한 도피처 같이 자기 옆에 항상 있으면서 약해질 때 자기를 딱 괴로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때 이혼을 하지 못했나

고래 |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여러 차례 이혼을 생각하고 결심하는 게기가 있었잖아요. 왜 그러지 못했어?

준마 | 돈 버는 일 중에 그렇게 행복한 일이 없기 때문에 돈 버는 것보다 집안 살림하는 게 더 나올 수도 있겠지. 살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나. 그러던 차에 예도 생기고 이 지간하게 자기와의 싸움을 안하면 쉽게 이혼을 생각 안할 거야. 그런데 막상 이제 아니다 싶을 때, 그런 순간에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거지.

파하 | 이혼을 실패로 보잖아. 특히 이혼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관성의 문제가 있는데, 결혼 자체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유지하는 데는 정말 아무라고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정말 무서워. 특별한 자정이 없다면 그 상황들이 고착화되니까.

고래 |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직업도 없조, 독립해서 뭔가를 할 만한 여력도 안되고,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데, 그래서 이혼을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바리 |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아버지 없어도 충분히 혼자서 살아갈 능력이 돼요. 그런데 이혼을 못하는 이유가, 자식들이 결혼을 할 때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파하 |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생상에 태어나서 가장 후회한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누구의 엄마가 된 거라고 얘기했거든. 결혼을 한 건 사실 힘들었지만 무를 수 있잖아. 그런데 누군가의 엄마가 된 건 내가 죽어도 소멸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이혼했다는 건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평생 동안의 멍에가 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지.

반딧 |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자식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게 자식들한테는 더 보기 고통스러워요.

준마 | 영화 〈안토니아스 라인〉 보면 대안가족 형태가 나오잖아. 사회적으로 공기가 바뀌어야 할 것 같아. 엄마아빠도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문제를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하겠지.

정말 결혼의 좋은 점은 없어요?

고래 | 결혼이 사랑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라는 것은 몰랐어요. 그리고 결혼 제도라는 것은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 자체가 실패담인 것 같아요. 상처담이기도 하구요.

준마 | 남편이 가지고 있는, 공기처럼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득권을 아내와의 관계에서 포기를 안하거든.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타났지. 지금은 극히 세련되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 공식이 별로 안부서질 것 같아.

바리, 고래 | (둘다 절망적인 목소리로) 이상적인 제도는 없는 거예요? 결혼의 좋은 점은 정말 없어요?

파하 | 정서적으로 한때 같은 공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기도 하지. 그런데 결혼 전의 아주 작은 차이가 결혼하고 나니까 살개천이 바다가 되듯이 커져버려. 나중엔 서로 손을 잡을 수 없을만큼 커져 있더라고.

고래 | 그래도 이런 공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적인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준마 | 이상적인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허구 아닌가?

자늑 | 내가 내 인생에 있어 어떤 것을 바라고 꿈꾸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친구 중에 결혼해서 잘 사는 친구 있어. 집에서 살림하는 거 좋아하고 애 키우는 거 좋아하고, 자기기는 결혼 잘했다고 얘기해. 그런데 만약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돌아버릴 거야. 그런데 결혼한 친구도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더라고. 자기가 집에서 계속 하는 일이 자기를 계속 없애가니까.

준마 | 후배 중에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예를 세 명 받았어. 유능하고 사회적 활동도 하고 싶어 했는데, 세 명을 키워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잖아. 그 친구가 술을 마셨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집안일이 되는 거야. 그다음부터 알콜 중독이 됐어. 일터로 나갔을 때 가정 살림에 애 키우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한 갈등이 알콜 중독으로까지 나가 버린 거지.

동동 | 고등학교 때부터 죽어도 마흔에 결혼한다고 했어요. 결혼 안한다면 밑어주지도 않고(웃음) 시간이 지나면서 꼭 결혼은 마흔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기 있죠. 마흔이 되면 그 남자 부모도 남자에게 기대하는 것을 접게 되고, 그때쯤이면 경제적 능력도 보이는 데도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없을 거고, 사회적인 문제들 다 극복하고 사람 하나 보고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파하 | 결혼 전에 남자친구와 한 달에 절반 쯤은 너무 만나기 싫더라고. 호르몬의 문제가 있나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같이 방을 써도 어떤 때는 내 방이 없다는 것이 돌아버릴 것 같은 때가 있어. 그래서 생각했었는데, 일주일만 내가 나가 살고, 다음주는 남자가 나가 사는 거지. 늘 언제나 같은 관계가 아니고 일정 정도 조절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바리 | 예전에 어떤 사람이 했는데 일처일부제라는 제도가 옛날에 사람 수명이 20~30 살일 때 가능한 얘기고 지금은 절대 불가능한 얘기로 80까지 살 거면 결혼 두세 번 하고, 이 사람과도 살아보고 저 사람과도 살아보고 즐겁게 살라고. (일동 폭소)

파하 | 진정한 사랑은 영원해, 이런 말들을 하잖아. 난 '웃기고 있네, 영원한 건 켜 켜 물 밖에 없다', 이렇게 코웃음 치는데 사랑은 달라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사랑이 없어도 결혼을 가져갈 수 있고, 세련된 물을 만들어가면서 각자의 위치를 속박하지 않는 자유가 있어야 하는 거겠지.

동동 | 진보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살다가도 결혼 문제가 닥치면 퇴보하는 것 같아요. 막 나가다가 군대 갔다오면 뒤로 물러나고, 막 나가다가 결혼하면 뒤로 물러나고, 돌만 있을 때는 완벽하고 합리적인 관계인데, 그 사람의 친구를 만나거나 친척을 만나거나 하면 사회 속으로 파묻혀요. 밥을 먹어도 풀이 있으면 같이 내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남자가 내요. 그리고 한국

사회 남자들은 뭘 하나를 해도 여

자가 잘하는 물을 못봐요. 이

자가 돈 많이 버는 것도

참을 수 없어 하구요.

준마 | 그런 사자상이 못

들어왔어? 조남발남, 조선남

자 뭘 남자 없다. (일동 폭소)

결혼,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고래 | 결혼 안한 사람들, 오늘에 대답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남았을 것 같은데. **동동** | 전 지금의 동자가 제 삶에서 가장 완벽한 상태인 것 같아요. 편해요. 혼자 있을 때는 폭주를 하거든요. 밤을 새고, 끼니도 안챙겨먹고 몸이 상하는데, 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 같이 끼니를 챙겨먹고 산다는 게 굉장히 이로운 점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결혼이라는 부분이 남았는데, 제 동자가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늑 | 난 남자랑 같이 살고 싶은 욕구가 별로 없거든. 시부모 문제라든지 가사 문제가 해결이 되든, 한 공간에서 내도록 한 사람을 끝까지 보아야 한다는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말야, 보이지 않는 압박에 대해 초연해 있지 않은 이상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것 같 모르겠어. 별로 결혼에 대한 가망성 같은 게 잘 안보이는데.

바리 | 처음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기로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집에서 지는 워낙 못볼 꼴 많이 봤거든요. 솔직히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길게 사귀어 본 적은 없고 남자들의 모든 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해서 나올 꼴이 다 보이고, 딱 보면 무슨 말 한마디만 나뉘고, '아 예는 됐다.' 이런 생각이 너무 잘 되니까. (웃음) 정말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한테도 말예요. 저희 엄마도 '예이고, 나는 이제 너무 많이 알아서 결혼하기도 힘들겠다.' 이런 말을 해요.

고래 | 엄마가 〈인어아가씨〉를 욕을 하면서도 항상 본단 말예요. 결혼생활이 그거랑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가족관계가 살다는 말은 아니지만 가끔 왜 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꾸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반딧 | 전 저희 엄마를 보면서 이상 결혼할 기면 우리아빠 같은 사람과는 안해야지, 이런 생각은 했조. 지금 사귀고 있는 친구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한게, 학교 다니면서, 집에 있으면서, 돈 벌면서 스트레스 받는 걸 그 친구를 만나는 동안에 다 풀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랑 결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결혼하고 나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네요.



항상 느끼지만 무의식이란 참 무섭다.

어렸을 때 누구나 이런 황당한 이야기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보름날(혹은 그믐날) 자정에 화장실에서 칼을 물고(=) 깨진 거울을 보면 거기서 미래의 배우자의 얼굴을 볼 수 있다(=) (해보고 자기 얼굴만 보아서 시집 못간다고 망언자실했던 친구도 실제로 있었다) 손바닥을 꼭 쥐었을 때 가운데 손가락의 재질이 래바디 밀의 주름 사이가 넓으면 닮을수록 미래의 남편 될 사람이 잘 생겼다는(=) (그러면 내 남편은 왕 꽃미남이겠지, 나는 주름사이가 너무 넓어서 손가락 마디 네 개로 보인다) 어렸든 위의 미신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결혼을 한다 안한다의 선택권은 애초부터 무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 모르게 강요된 결혼에 대한 무지한 환상.

어렸을 때부터 결혼은 당연사자가 되고 나는 시집안가고 엄마랑 살래 류의 말들이 한때의 장난스런 말로 치부되어 버리고 어느새 우리의 머릿속에는 때가 되면 결혼해야지 라는 생각이 지배해 있다. 결혼에 대한 의지와 마찬가지로 실제 결혼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변의 생각에 맞춰간다. 나이도, 시기도, 배우자의 조건도 내 생각보다는 주변의 생각에 맞추어야 한다. 결혼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권은 그리 많지 않다. 개인이 상상하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위의 미신들처럼 기껏해야 남편 될 사람의 미모 정도에 국한되는 건지도 모른다. 우리들의 기대란 얼마나 소박한가. 나도 역시 그랬다.

딸부잣집

우리 집은 딸이 많다.

예전에 KBS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딸부잣집'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 집은 그 드라마 보면서 가소로움에 웃었다. 그런 집이다, 우리 집은. 그러나 우리 집은 딸이 일곱인 '딸부잣집'인 것이다. 어린 시절의 나에게 결혼이란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자님이나 신데렐라에 나오는 왕자님처럼 나를 이 환경에서 구해줄 수 있는 사람과의 행복한 결합이라고 생각했다. 때로는 인어공주처럼 비극적인 결말도 좋아했지만 나의 일은 아니었다. 언니들과는 틀린 나면 미래에 살게 될 집을 설계했고 두 살 터울의 언니와는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밤을 새운 적도 있었다. 우리 집은 가족이 많아 자신만의 방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고 그래서 우리 이야기의 주제는 돈 많고 잘 생긴 왕자님과 결혼해 정말 멋진 남편의 방을 가지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던 중 첫째 언니가 결혼을 했다. 우리 집의 딸이 언니의 이상형은 우리 자매들을 잘 이해해주고 엄마 아빠에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단다. 나의 이상형이 나만을 사랑해 주고 나를 이 환경에서 구해줄 그런 백미판 왕자님이었을 때 큰언니는 배우자에 대한 소박한 기대조차도 가족들의 몫으로 돌렸다.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나는 조금 자랐고 둘째 언니는 내가 고 3일 때 수능을 얼마 앞두고 결혼을 했다. 그 즈음 우리 집은 큰언니의 활약으로 환경이 많이 나아졌다. 둘째 언니는 우리 자매들 중에서 공부에 제일 잘했다. 그래서 집안의 기대주였다. 둘째 언니의 결혼은 아주 많은 문제가 되었다. 언니는 재능이 많았지만 결혼을 하면서 살림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내가 알기로 언니의 많은 재능 중에 설거지와 빨래는 없었다. 당연히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고 그래도 언니는 사랑으로 극복한 것 같았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한 언니가 나는 정말 멋져 보였다. 나는 아직 고등학생이었다. 나는 조금 더 자랐고 대학에 들어왔고 남자친구도 사귀었다. 이제는 세상에 백미판 왕자는 없다는 것을 아는 나이가 되었다. 지금 셋째 언니의 나이는 남들이 소위 말하는 꼭 찬 나이이다. 셋째 언니에게는 아직 결혼 계획이 없다. 집에서 엄마는 산을 보여야 하나 들오에 가 입을 시켜야 하나 매일 고민이다. 셋째 언니는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지만 본의 아니게 엄마에게 '치워야 할' 하나의 고민이 되어버렸다. 언니들

이 결혼하고 직장 근처에 집을 가진 덕분에 나와 내 동생에게는 방이 생겼다. 이제 더 이상 왕자님과 둘만의 방을 갖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내가 언니와 밤을 새우며 이야기했듯이 나와 동생도 물론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그때와는 그 내용이 사뭇 다름을 느낀다.

넷째 언니가 데려온 남자친구는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입버릇처럼 말하던 우리 아빠 아빠를 모시고 살 사람이다. 실현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렸든 우리 넷째 언니의 이상형은 아빠가 없는 우리 집의 대원사위였다. 그다음 언니와 나와 우리 동생은 아직 유동적이다. 아직은 결혼을 할지 안할지, 한다고 해도 어떤식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언니들의 경험으로 '눈'을 가지게 되었다. 첫째 언니와 같이 형사 가족을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는 삶이 행복한지, 둘째 언니처럼 사랑이란 느낌으로 굳이 자신을 희생하며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야 했는지, 셋째 언니는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결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는 항상 여자 쪽의 더 큰 고민거리여야 하는지. 눈으로 보고 확인한 우리는 이제 '이상형'이 아닌 '현실형'을 말한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가면

행복하게만 보였던 우리 집에 틈이 보이기 시작한 건 내가 중 3때쯤이었을 것이다. 그 틈이 왜 생겼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와 아빠는 아주 사랑스러운 사이라고 생각했고 아빠 같은 사람이 이상형이었던 적도 잠시지만 있었다.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아빠 같은 남편도 'NO THANK YOU.'다. 가족이란 말이 가지는 행복함과 충만함의 이미지는 누가 만든 것일까. 이제 나는 가족이란 말이 가지는 양면의 무서움도 알고 있다. 그 가족을 형성하는 시초가 되는 결혼. 그 결혼의 이미지도 허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흰 웨딩드레스와 폭죽. 화창한 5월의 날씨가 아니라 폭 건 웨딩드레스의 허리와 너무 전해서 내 자신을 가리는 신부화장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님을 정말 잘 알고 있다. 나는 아마도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행복함의 이미지로 그려진 가정 속에서 자랐고 언니들이 차례대로 결혼을 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엄마의 고민 따위는 되고 싶지 않을 것이므로 언젠가는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생각보다 관성이란 대단해서 내 작은 의지로는 관성을 이기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래도 이 세상은 만만치 않아서 많은 마찰이 예상되므로 언젠가는 구르던 돌도 멈춰서겠지. 그것이 조금 위안이 된다.

이제, 이상이 아닌 현실을 말한다

현대의 결혼은 많은 모순점을 포함한다. 평등하고 이상적인 결혼제도란 없다. 어떤 책에선가 앞의 말을 너무 강경한 어조로 말해서 울리 울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 예전의 나 같으면 믿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사실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하고 싶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고 따뜻한 가정과 예쁜 아이를 갖고 싶다. 항상 봄날 같은 충만한 느낌에 내 삶을 내리 켜 줄 것이다.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실험정신과 도전정신으로 혹은 이판사판의 정신으로 결혼에 입문한다. 그리고 모두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행복한 결혼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결혼해 보지 않은 우리만 모른다. 그리고 아마 우리도 눈 질끈 감고 속아 넘어가겠지. 주변을 둘러보면 사랑도 연애도 천차만별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 무수한 영화들과 노래가사가 모두 다른 유형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만 봐도 그렇다. 모두 그렇게도 다른 연애와 사랑을 하고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우후죽순, 천차만별의 생각을 가질 것임에도 결혼식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판매 박은 듯한 하나의 모습을 보이는지 인간적인 의문이 생길 정도다. 나는 결혼이, 결혼식, 그리고 결혼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무섭다.



완월동에 위치한 '국가직장성병 검진소'입니다. (HisStory) 1호에도 실렸었지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의 이중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 성매매 산업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으며, 업주들은 경찰의 단속과 법망을 피하기 위해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성매매여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는 현장단체들의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산지역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한 상담소 '살림'에서는 방학 동안에 부산의 성매매 지역 실태조사를 함께 할 자원활동가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간: 6월 23일 ~ 8월 말
- 문의: 부산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상담소 '살림' (부산시 서구 초장동)
- 홈페이지: <http://www.wom-survivors.org/>
- 연락처: (051)247-8292, 019-506-7936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와 연대사업 상영회 및 워크숍 안내

〈2003년 6월 12일(목) 상영회〉
의정부 기지촌 삶의 이야기 나와 부영이 상영회

- 장소: 시내메테크 부산
- 시간: 오후 7시 30분
- 관람료: 무료

〈6월 13일(금) 워크숍〉

- 주최: 한소리회
- 주관: 상담소 '살림', 여성문화인권센터
- 장소: 여성센터 13층내내글 지하철역 1번 출구
- 시간: 오전 10시

허난설헌 -그누가 앵무새를 가두어 키우는가

글 | 평상심 e44@freechal.com

당신의 글이 중국에서 크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을 따라 '소설현'이라는 호를 쓴 사람도 있었는데요. 중국을 통해 역수입되어 알려진 자신의 글을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놀랐지요. 나는 시를 인정받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인정받으려만 기대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자신의 글이 인정받았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에요. 다만 쓸쓸한 점은 같은 글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묻히고 중국에서는 인정받았느냐 하는 것이예요. 중국은 유교문화의 발원지이기지만, 땅도 넓고 사람도 많아 오히려 다양한 생각을 인정해 주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고정적이고 폐쇄적인 면이 부각되어서 거기에 서 벗어나는 것은 아예 배척했던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만일 좀 더 개방적인 상황이었다면, 더 많은 여성작가의 글들이 알려졌지 않았겠어요? 여성에게 글 자체를 가르치지 않고, 글을 쓰는 것도 반대했던 그 사회가 실제로는 사회의 편이 되는 인재를 거부한 셈이 된 거지요.

조선시대에 여성이 시를(그것도 한시) 짓는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언문(한글)이나 배우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던 그 시대에 한시를 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제가 산 16세기는 여성이 교양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던 시대였어요. 그 사실이 무척 답답했지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집안에서 내가 글을 배우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아버지(허엽)가 내 재능을 알아봐서 후원해줬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 자신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저는 오빠와 남동생들 사이에서 자랐고 글에 대해서 경쟁의식이 많았어요. 남자가 글을 못쓰는 건 '문 나야질' 태니, 좀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고, 여자가 못쓰는 건 '배워봐야 원래 못쓰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시대였으니까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글을 배울 명분조차 없었기 때문에 많이 노력했어요. 물론 재능도 필요하겠지만(웃음). 결국 가족들이 내가 글을 쓰는데 일조를 한 셈이지요.

시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시라. 저는 어린 시절 글을 배운 뒤로 줄곧 시를 써왔어요. 시를 알게 된 건 내 삶에서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시는 간결하고 솔직하게 내 생각을 담아낼 수 있어서 좋아요. 또 저에게 의미하는 바를 말하자면, 아무래도 '자아성찰'이지요. 너무 거창한가요(웃음). 거창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등의 생각들이 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예요. 시를 통해서 자아를 살펴보고, 현실과 견주어 보곤 했지요. 처음엔 자아성찰에 대한 욕구를 가진 나 자신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끝 나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이런 고민들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에 내 자신에 대한 생각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생각들도 살았어요. 결국 시는 나 자신과 대화하고, 사회와 대화하는 통로가 되었지요. 시는 나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예요.

김성립씨와의 결혼 생활은 어떠했는지?

한마디로, 잘 맞지 않는 두 사람이 만난 경우였어요. 김성립은 내 오빠의 친구였지요. 남편의 집안은 수재집안이었지만, 남편은 과거에 많이 낭패했어. 물론 남편이 중세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이에 불화의 원인은 아니었어요. 나는 그가 원한다면 출세하기를 바랬지만, 자신이 비술에 뜻이 없다면 그냥 화목하게 살기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나에게 대해서 일종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부사이에 누가 잘못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남자가 여자보다 뛰어나라는 법 없구요. 현재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이없게도 아내보다 사회적 지위(능력)가 낮은 남자는 바로 취급 당했어요. 남편의 친구들이 남편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놀리고 있었으니 그의 감정이 많이 상했겠지요. 그래도 나는 그가 기방을 전전하는 걸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지내길 바랬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시도 많이 지었지요. 하지만 그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지 내 잘못이 아닌데 답답하고,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심지어 시아머니도 나에게 냉담했어요. 결혼 생활에서 내가 외지할 때는 시와 아이들밖에 없었지요.

아이 세 명이 모두 먼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큰 절망에 빠지셨을텐데요. 그때의 기분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말하는 지금도 가슴이 아프네요. 아이들은 내 삶의 희망이었어요. 남편은 기방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아머니는 냉담하고, 정말 살아가는 나날이 딱딱했어요. 밤잠을 등불 하나 없이 견는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그런 내 삶에서 아이들은 등불이 되어주었지요. 아이들이 있다면, 난 이런 결혼 생활도 견딜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차례로 죽었을 때는 너무 슬퍼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니, 정말 내가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조선시대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금은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결혼하는 날까지 신랑신부가 서로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고, 집안끼리 혼사를 정하면 거기에 따라야 했지요. 그래서 나같이 좋지 않은 결혼이 많았어요. 부부는 정으로 산다고 하지만, 원래 성향이 다른 사람도 있는 거 아니까요. 당시의 '부부간의 정'은 '내게 남편에게 맞춰주는 것'에서 시작했어. 여자는 사회생활도 할 수 없었고 남편의 그늘아래 살아야 했으니까, 자신을 부양해 준다고 생각하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칠거지악'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병어리 삼년, 귀머거리 삼년 얘기는요? 사실 이런 역자가 어디 있었어요.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지,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잖아요.

통시대의 이수광이나 박자원이 당신에 대해 한 말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여성이 한시를 짓는다는 지체에 대해 무척 비판적인데요. 그들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

박자원이 실학자이자 진보적인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들었어요. 무척 뜻밖이더군요. 그들은 사회 개혁을 주장하고, 심지어 모든 백성들이 평등한 사회를 꿈꾸었지만, 그 백성

들에 여성은 들어가지 않는가 보군요. 세상의 편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당연한 진리 아닌가요? 여성도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어요. 박자원이나 이수광은 사회를 개혁하기를 바랬겠지만 정작 자신들은 남존여비의 유교적 사고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건 아닌가 싶군요.

본인은 명문가 출신이시고, 남편인 김성립씨가 기방을 들락거렸음에도 불구하고, 〈빈녀들〉이나 〈기녀전〉 등을 보면 기방에 있는 여성들까지 모든 여성들에 대해 자매애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그 여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었어요. 기녀들은 가부장적인 사회가 일부다처를 인정해주고, 남성들의 다첩을 용인하는 분위기에서 존재했지요. 그나름 집안에서 정숙하기만을 강요당하는 본처와는 또 다르게 남성들의 성적인 노라개가 되어야 했어요. 기녀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만 드네요. 고통받은 여성들은 기녀만이 아니겠지요. 평생 성은만을 기다리며 사는 궁녀나 가난한 집에서 재산으로 여겨지는 여성들. 나는 우리 집안이 소위 명문가에 들었기 때문에 다른 여성에 비해 고생을 모르고 자랐어요. 그런데도 여성이 가진 굴레를 이렇게 느끼는데, 가난하고 신분 낮은 집안의 여성들은 오죽했겠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전체가 남성의 부속물로 여겨지고, 집안의 부속물로 여겨졌어요.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발휘해 볼 기회조차 없었고, 오로지 '남성'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지요. 신분이 높은 낮은 그 면에서는 여성 모두 같다고 느껴요.

〈가객사〉나 〈축성원〉 등의 시를 보면, 양반들에 의해 강제노역이나 수탈을 당하는 백성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어떻게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되셨나요? 그리고 당신이 살았던 16세기 조선시대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면?

말하자면, 마음이 답답해지네요. 내가 살았던 시대는 여성에게 모든 것이 닫혀있는 시대였어요. 여성은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침묵하는 존재에 불과했지요. 그런 것에 대해 말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이런 시대일수록 같이 침묵할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들은 아버지의 관직생활을 보면서 깨닫기도 했지만, 커갈수록 사회가 너무 양반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낀 데에서 시작되었지요. 백성들은 양반을 위한 배경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어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건 치국의 근본인데, 그 많은 경전을 읽었다는 양반들이 왜 그 사실을 모르는지, 이해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았지요.

이문열의 〈선택〉이라는 작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내용상 정부인 정씨는 조선시대에 빗대어 현대의 여성들에게 훈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문열씨에 대해 읽히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이 글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더군요. 먼저 조선시대에 빗대어, 현재를 비판한다는 것부터 잘못 되었다고요. 조선시대는 현재사회와 전체적으로 완전히 달랐지요. 그런데 작가는 그런 상황적인 요인은 생각지도 않고, 현재의 '여성주의자' 혹은 '여성주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맹렬히 비난해 놓았다군요. 사실 두 시대는 비교하기도 마땅치 않은데, 그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역시 이문열씨 말처럼 '선택'은 아니었겠어요. 그건 '강요'였지요. 그런데도 현대의 여성들에게 작가가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 아닌가요? 결국 그 글은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을 집안일(가사)에 국한시키고, 여성주의에 대한 작가의 불편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었어요. 자생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할 정도였지요.

지금의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허난설헌 인터뷰 INTERVIEW

글예요.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서 많은 생각들이 인정받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여성주의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우리가 낼 수 없었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놀랄기도 하구요. 현재는 여성주의가 과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주의 내부에서도 끝없는 성찰을 해야 할 것이고, 아직 갈 길이 멀겠지요. 사회 상황이 바라는 모든 것을 말하기엔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다행이에요. 문학 같은 경우에도 여러 여성작가들이 글을 쓰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끝으로 지금의 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선시대에 비해 지금이 훨씬 나으니, 대중 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사회는 변하는 것이니까, 시대에 따라 그 사회에서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조선시대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의 문제점을 고민해야지요. 개인적으로 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좀더 적극적으로 살라는 것이예요.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사회가 이러한 벽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그 벽에 순응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 벽을 허물어야 여러분의 발들도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더 나아갈 수 있어요.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저 역시 현실에 안주했다면 글을 배울 수도, 쓸 수도 없었을 거예요. 내 자신이 그 일을 좋아하고 해 나가려는 생각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사회는 변합니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해선 안된다'라고 듣고 있는 말들도 미래에는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힘을 내세요!

이상 허난설헌과의 가상인터뷰를 마칩니다.



호랭이의 일기

2003년 5월 X일 날씨 맑음

수업을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갑자기 '뽕'가 마렵다는 신호로 대중 눈에 띄는 항공관 건물로 뛰어 들어갔다. 공대인 자라 겨우 여자 화장실을 찾아 들어갔는데 이게 웬걸! 벽 한쪽으로 꾸물꾸물 남자 소변기가 줄 서 있는 게 아닌가? 당황한 나는 재빨리 나와서 표지판을 확인했다. 그것은 분명 빨간 차마를 두른 여자 모양의 표지판은 걸려 있었다. 이상하다며 한동안 멍뚱해서 있다가, 오른쪽으로 또 다른 문이 있는 걸 발견했다. 비로소 나는 그 프로그램 공간이 여자 화장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여자 화장실이 뽕뽕뽕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은 비단 호랭이와 자이만 느껴본 일이 아닐 것이다. 부산대학교 여학우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 보았을 법한 일이다. 우리 학교 건물의 대부분은 남자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보다 크게 설계되어 있다. 왜냐하면 여자 화장실 안의 대변기 수만큼, 남자 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맞추고, 거기에서 다시 소변기를 붙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남자 화장실 안의 동선은 복잡해지고 따라서 남자 화장실이 더 커지게 된다. 오래되고 허술하게 지어진 건물일수록 이런 현상은 뚜렷이 나타나는데, 부산대학교의 경우 대표적인 예가 학생회관(2층) 화장실이다. 도면을 보면 화장실 자리만 기술되어 있고 별다른 표시가 없는데 이거 분명히 위의 방식으로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 놓았다. 요거 궁금하면 직접 가서 크기를 비교해 보면 된다. 출자 같은 거다 필요 없다. 육안으로도 남자 화장실 너비가 여자 화장실보다 길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자들은 기본적인 불일(불)의 시간이 길다. 화장실문화시민연대*의 조사 결과 여성 화장실의 1회 사용 시간은 평균 3분이고, 남성은 1분 26초라는 수치도 있다. 분명히, 여자들이 남자보다 화장실에서 하는 일은 더 많다. 화장을 고친다거나, 뜯어낸 스타킹을 갈아 신는다는가, 하는 일들이 모두 화장실에서 이루어진다. 결정적으로 여자의 경우, 한 달에 일주일의 생리 기간이다. 부산대 전체 여성의 1/5은 생리중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어머머하지 않은가) 따라서 대개 여자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보다 더 붐비게 된다. (더구나 한꺼번에 사람들이 빠져 나오는 극장이나 강의실의 경우에는 더 심할 것이다.)

우리가 '잘' 있는 화장실에 웬 시비냐구요?

여기까지 읽으시고도 "오빠다", "똥 났겠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를 보시라! 이런 분들을 위해 눈에 확 띄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다. 양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서글픈 현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더 가슴에 와 닿을 테니까.

필자와 필자 짝지는 제2 도서관 3층 화장실을 대상으로, 여자와 남자가 평균적으로 화장실에 있는 시간, 그리고 1시간 동안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간을 계산하여, 시간당 각 변기가 사용되는 시간을 계산해 보았다.

자이의 일기

2003년 5월 X일 날씨 흐림

사회대에서 연장으로 듣는 수업을 마치자마자 여대생 참고 있었던 것(들)을 배출하기 위해 급히 화장실에 뛰어갔다. 그런데 이렇게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방금 수업을 마치고 쏟아져 나온 여학우들로 코딱지만한 화장실이 바글바글했다. 정말 참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인내의 줄을 잡아 당겨가며 단 두 칸뿐인 화장실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서 있었다. 그리고 열을 보니,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이 줄 잘 선 덕으로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아-예, 내가 거기 서 있었어야 했는데! 비탄의 목소리, 울려 퍼지고, 아머는 온통 땀으로 뒤덮였다. 화장실 칸이 좀 더 있었다면! 한 줄서기를 한다면!이라는 생각이 기다리는 내내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참고로 아래의 표의 자료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각각 1시간) 하나하나 들어간 사람 수를 확인한 것이다. 나름대로 공정성을 가하기 위해, 한사람은 마킹하고 열 사람은 그 마킹을 하나하나 확인하였다. 화장실에 들어간 모든 인원은 반드시 불일(불)을 보고 나왔다고 가정하였고, 남자들의 경우, 들어가는 사람이 작은 것인지 큰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관계로 대변기, 소변기 수에 비례한 인원(불일 보실 분)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화장실(변기) 1회 사용시간은 화장실 시민연대에서 작성된 자료-화장실 1회 사용 시간당 평균 여성: 3분, 남성: 1분 26초-를 이용하였다. 시비거실 분을 대비해서 사용된 식도 공개한다.

$$\text{변기당 평균 사용시간} = \frac{\text{들어간 사람의 수} \times \text{평균 사용시간}}{\text{변기개수}}$$

	여자화장실(1)	여자화장실(2)	남자화장실(1)	남자화장실(2)
면적	26㎡	16.2㎡	17.00㎡	23.12㎡
변기개수	대변기 6개	대변기 3개	대변기 3개 소변기 5개	대변기 5개 소변기 8개
시간당 사용인원	85명	47명	65명	85명
변기당 사용시간	42분 30초	47분	11분 22.5초	9분 9.2초

위 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남녀 화장실 변기가 활용되는 시간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여러 차례 실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한 실험은 아니다. 하지만 부산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서, 작은 단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자이와 호랭이는 부산대학교의 남녀 화장실을 직접 발로 뛰며, 실태 조사를 해 보았다. 우리의 문제 의식과 조사에 못 사람들은 "재래들 왜 또 오빠야!"라며 다그칠 지도 혹은 (심지어) 둘 하나 던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학내 곳곳에서 들려오는 여학우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를 들을 때, 그것은 단지 나서지 않는 것일 뿐이다. (아니면 이런 부당한 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나.)

* 화장실문화시민연대 www.restroom.or.kr/

이름하야 화장실 습격사건!

부산대학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인문관의 여자 화장실은 과거 여러 차례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 공간이어서 화장실 자체의 협소함보다는 다른 쪽에서 문제가 많이 되어 온 곳이다. (공간 문제를 다루는 기사이지만 걸다리로 조금 써 보겠다.) 인문관 골다리에 붙어 있는 화장실(단테 전산실 쪽으로 있는 화장실은 불일 보는 공간을 가리는 문이 바닥과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변태들의 주 표적이 되었다. 변태들은 그 틈으로 불일 보는 여자를 훑쳐보기는 물론이거니와 그 사이로 손을 넣고 뽕는 등 악질적으로 변태스러운 일을 저질렀다.)

인문관은 원래부터 인문관이 아니었다. 1959년에 완공된 인문관은 구 본관으로서 문리대, 법대, 상대, 약대, 공대, 의대 등 6개의 단과대학이 그곳에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학우가 절대적으로 많은 인문관이 남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공대의 남자 화장실처럼 설계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는 바랄 수는 없는 곳이다. 그리고 화장실이 부족한 분을 앞서 언급한 1층 화장실이 어느 정도 해소해 준다. 더구나 인문관은 건물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건물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 변경을 하여 보존해야 할 곳이다. (인문관은 97년 정밀안전 진단 때, 당장 철거를 요하는 E등급 판정을 받았다. 붕괴의 위험이 있는 인문관은 2001년 여름방학 때 진행된 에스코 사업**에도 제외되었다.)

사회대 역시 여학우들이 많은 단대이지만 남자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보다 넓었다. 사회대 건물 왼쪽 편(학교 순환버스가 다니는 쪽으로 있는)에 있는 여자 화장실은 대변기 2개, 남자 화장실은 대변기 2개, 소변기 5개가 있다. 그런데 사회대는 교양수업도 많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사회대 여학우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단대에서 사회대로 교양수업을 들으러 온 여학우들은 일찌감치 사회대에서 불일 보기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기가 일쑤다. (기다리는 편보다는 가까운 제2 도서관 1층 화장실에 가는 게 더 빠르다. 하지만 거기도 불비는 마찬가지. 그럴 때, 난?? 흑흑)

이런 불편한 면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초, 사회대는 건물 왼쪽 편에 있는 2층 남자 화장실을 여자 화장실로 바꾸는 과감한 시도를 했다.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를 빼내고 그곳에 여자 화장실로 쓴다고 공사를 한 것이다. 비록 대변기 두 개가 전부이지만 간단한 공사로 여자 화장실 문제를 줄인 좋은 본보기라 하겠다.



이에 남녀 화장실 개수나 규모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예술대는 사람 수에 비해 화장실 규모가 너무나 협소하며, 여학우가 남학우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화장실이 남자화장실과 같은 크기로 건축되어 있는데,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 거진다.

**에스코 사업: 학내 건물에 냉난방을 완비하는 사업.



화장실 확장 공사??

지금까지 화장실 습격단이 차례차례 부산대학교 캠퍼스의 화장실을 돌아다닌 결과만 보더라도 여자 화장실이 부족하고 일약한 것은 사실이다. (알아하기는 남자 화장실도 마찬가지)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자 화장실에 확장 공사를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강의실도 부족한 한국에 학교 당국에서 여자 화장실을 더 지을 수 있을까? — 그 학교를 직접 발로 뛰어보면 서, 여자 화장실을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 35대 총 학생회(이하 총학)는 선거 공약 중 하나로 화장실 개선을 내세웠다. 현 총학은 그것의 일환으로 여자 화장실 증축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의 (빠듯한) 복지 예산을 직접 쓰는 것이니만큼, 현 총학은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해서 공약이 지켜지고, 현재의 불편이 해결되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고의 전환

학문이 제도적으로 여성에게 개방된지도 100년이 조금 넘는다. (이 100년의 짧은 역사는 시작 당시에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졌으니,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의 역사는 더욱 짧았을 터) 더욱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축설계와 같은 공대 계열이 여성에게는 불모지라고 같았다.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은 인간인 이상 건물 안에 살기 마련인데, 그런 곳에 여성 일꾼이 없었다시피 하니 여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은 일견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여자 화장실 있다'라는 것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아니다. 물론 아니다. 우리 사회에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고는 하지만 그 기준들이란 대개 기득권을 중심으로 한다. 장애인보다는 정상인을, 젊은 자보다는 가진 자를, 원손잡이보다는 오른손잡이를, 여성보다는 남성을 먼저 한다. 주변부는 소외된다. 다수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일상의 폭력이다. 더구나 여성은 인류의 절반이지 않는가!

일상에서부터

건축은 한 시대에서 통용되는 문화양식이다. 현대인들은 과거의 문화양식을 보고 이전 시대의 단면을 본다. 꼭 같이 현대인이 향유하는 사회 전반의 양식들은 우리의 일상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화장실은 일상으로 가라앉아 사소한 일이 된다. 현대인의 문화양식으로 여자화장실이 있고 무엇보다 부산대학교의 여자 화장실은 이 시대의 메타포이다. 그것으로 호랭이와 자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일상을 보았다.

따분하다 못해 하품까지 나오는 일상적인 것들. 그래서 눈치조차 채지 못하는 부분들이야말로 변하기 가장 힘든, 무서운 것이다. 무슨무슨주의자나 페미니즘이 일상에 시비 걸지 않을 때야말로 여성운동이 없어질 다른 시대일 것이다.

남자 소변기에 대한 엉뚱하거나 씩박한 생각

글자이 gimminha@hanmail.net

서서 소변을 보는 남자들의 습관 때문에 지금 거의 모든 남자 화장실의 벽에는 남자 소변기가 주르르 붙어있다. 고급스런 장소가 아니라면 이러한 남자 화장실 소변기는 반드시 붙어있을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시간에 쫓기고 바쁜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들은 항상 평가에 쫓기고 '나 급하게 일보고 갔소'라는 흔적을 남기고 가는 것일까? 또 해당 화장실시멘트대 사무국장도 이러한 남자들의 소변습관에 대해서 한 말자국만 알았을 거고 누르고도 좀 더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처음으로 변기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칠 때, 여자들은 남자들은 구분 않고 앉아서 누르도록 가르친다고 한다. 남자들은 커서서 서서 소변을 보든, 앉아서 보든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겠지만 어찌되었든, 어릴 때부터 화장실은 깨끗하게 써야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교육하는 셈이다. 아들이 자란다면 평가에 쫓기고 일을 보는 습관 따위는 만들지 않을 테니까.

이러한 남성 전용 소변기란 건축가들에게도 애물단지인가보다. 유명 건축인 김찬우씨도 이에 대해 아주 기묘한 생각을 했다.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를 없앤다면 소위 말하는 '물건 콤플렉스'가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소변기가 없는 화장실은 3가지 경우인데, 김 화장실, 비행기, 버스, 기차에서와 같은 공간이 협소한 곳의 화장실, 고급 레스토랑이나 회의실 전용 화장실이 그 경우이다. 마지막 경우를 우리나라의 모든 화장실에 적용시킨다면 프라이버시도 지켜주는 의미에서 1인 1실의 칸막이 화장실이 남자에게도 적용되어 물건 콤플렉스 따위는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전세계의 말처럼 남자 소변기가 없어져서 두명을 울리고 소변을 보게 된다면, 그들도 작은 것은 몰라도 큰 것은 앉아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앉을 때를 고려해서라도 서서 할 때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러하여 외쳐본다! "그냥 남자 소변기 없애주세요!" 꼭꼭...

INTERVIEW

총학생회 팔쥬를 만나다

정리 | 실레 hiradap@freechal.com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시는데 정말 피란만장한 대학생일 보내셨겠어요.

그간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지. 어학연수 빼고는 할거 못할 거다 쥐었다니까

전대기엔, 여기 최초의 여자의장이셨는데 그때 얘기 해주세요.

그때 많고 많은 활동들을 했었지. 여자의장이라는 데 말도 많았어. 모임의 이미지 운운하며 여자의 의장을 하면 힘없는 단체로 보이기 싫다? 그럴수록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일념 하에 열심히 일했거든. 나중엔 역대 의장 중 최고의 카리스마라고 하는 과분한 칭찬도 들었어.

아아- 카리스마, 거기서 주로 어떤 일들을 했나요?

한총련, 시민연대 등의 단체와 연대사업을 많이 했고, 가장 두드러진 활동이라면 조선일보 반대 투쟁이겠지? 안티조선집회, 안티조선 일만 명 서명운동, 안티조선후원, 우리나라 방송 3사에 보도될 정도로 안티조선을 크게 홍보했어.

대학교에서 신문을 만드는 이들에게 하고픈 말 있으세요?

현재 대학생 신문은 많이 경직되어 있어. 재미도 없고,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신문이 되었으면 해. 대학신문기자 교육도 꼭 필요하고.

지금은 총학생회에서 활동하신다면데요?

참엔 도와주는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값진 경험들을 많이 쌓으면서 오히려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어. 평소엔 생애, 성폭력, 취업문제,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았거든.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면.

지금은 생각하기도 싫지만 1학년만부터 6개월 간 신문사 동기로부터 지속적으로 당한 성폭력이 그 계기야. 그 후 오랜 기간 싸우면서 23차의 피해까지 입었는데, 그 정신적 피해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어. 이 사건을 신고하고 알렸을 때 나의 행실을 문제삼은 사람들도 많았어. 가해자측 어머니가 오히려 행패를 부리고 학교 신문사에서 산배들이 따가운 시신을 보냈지. 신문사에 먹칠을 한다는 등. 당시 성폭력에 관한 체계가 잘 안되어 있던 때라 대리인 선임도 없이 피해자 본인이 일일이 모든 일을 처리했고, 대학 입학시절 발달, 상해, 내수, 여성스런 성격이 이때부터 많이 변화했어. 다음해 6월 그 여고수님께서 합의를 요구해서 형식적으로 합의하긴 했지만, 결국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어. 대신, 인문대 한 모임에서 실명자보를 만들어 게시판에 붙이기도 했어.

전

대기엔(전국대학생기자연합) 최초의 여자의장. 2001년 사회 각계 인사들과 함께 평양 방문, 성폭력 사건(2), 안티조선 운동. 그녀에게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알게 되면서 밤잠지 못한 선배임을 직시했다. 어떤 사람일까? 마스한 5월 9일 총학생회실, 꼭 한번 많은 얘기를 나눠 보고 싶었던 사회복지학과 96학번 고윤정 선배(팔쥬)를 만났다.

가해자는 결국 신문을 나갔고, 나한테도 따가운 시선이 많았지만 몸이 망가져가면서까지 열심히 일했어. 나중엔 편집국장까지 했고, 하지만 당시 몸이 많이 안 좋아졌고, 자금생각해보면 자신이 아주 피곤했었고 그렇게까지 극한에 치닫게 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 그 사건으로 서울에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거든. 이후 성폭력을 넘어서 생애, 페미니즘 등에도 관심을 갖고 공부했어.

정말 힘드셨겠어요. 지금은 어때요?

솔직히 말해 한때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그 일에 대한 상처가 그대로이긴 하지만) 그 동안의 많은 상담과 심리치료 등 나름의 공부를 통해 한편으로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 물론 성폭력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당할 필요가 있고, 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됐어. 나 자신의 상처가 이렇게 큰데 성폭력, 생애에 피해 여성의 상처도 얼마나 클까? 그 후로 그런 여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도 많이 했어.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

참, 이번엔 취직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인가요?

"학교사회사업가" 처음 들어보지? 교육부에서 만든 신생직종이거든. 단순한 상담이 아닌 말 그대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거지.

이 작업을 선택하고 일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먼저 이 일을 하게 되면서 느낀 좋은 점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학교사회사업가라는 것이 사회복지 중에서도 미개척분야인데 이 분야의 선구자가 되어 개척하는 느낌이 좋아. 두 번째로 학생들이 선생님께 고민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교사와는 달리 아이들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편안한 역할이지.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인성교육보다는 학업에 치중하기 쉽잖아. 그렇게 되면 아이들에게 있어 학교가 갑갑한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

규칙, 질서보다는 변화, 개학을 더 좋아하고, 아무튼 도전정신이 강한 성격이라 이 일이 적성에도 맞고 평소 관심도 있었어. 그렇지만, 현재는 몹시 힘들어. 갖 시작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신생직종이라 그간의 업무데이터도 없고...

미개척분야이니 멋지게 개척하시길 바래요. 으쌰으쌰 그럼 마지막으로 여자 후배들에게 한마디!

당당한 여성이 되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여러 번 강조) 경험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신을 가지 있게 여기라는 거. 스스로가 소중히 여기고 가지 있게 여겨야 타인도 자신을 가지 있게 여기는 거거든. 그리고 여자후배들 총학생회 활동 해보길 권하고 싶어. 글, 기획, 홍보, 회의하는 것부터 수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세상을 보는 시각도 넓어주고 인생, 가치관에도 엄청난 도움을 주거든.

고윤정 선배, 생각했던 것처럼 당당한 열혈여성이었다. 배울 점도 많고 인터뷰 내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말씀도 잘 하셨다. 올해 4학년 졸업반인데 지금 하는 일 열심히 하시고 여태껏 힘들었던 만큼 앞으로는 무한한 활이 함께 하길 바래요.



부

산대학교 국어국문학 강사. 이경 선생님을 대해서 아는 것이라곤 학생으로서 (비평작가론)이라는 그녀의 강의를 들은 것 외에는 없었다. 유난히 인상깊었던 것은 여성주의 문학과 비평에 대해서 예민한 통수를 가진 그녀의 강의였고 학생들에게 한주어 얘기하는 여성과 문학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더 궁금해지던 차에 여성연구소에서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여성 연구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학술진흥원에서 프로젝트 하나를 맡아서 3년 간 여성연구소 연구교수로 발령이 났어요. 음식의 기호학을 통해 한국현대사를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소설에 나타난 피식자와 포식자의 관계를 통해 계급, 성, 세대의 기호를 찾아보려는 것이지요.

대학 시절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대학 때는 극저작 인간이었죠. 별 생각 없이, 탈 고등학교가 목표였지, 대학교 입학이 목표가 아니었다고 생각되어요. 이고 떠남 같은데도 나오듯이 나에게만 고등학교가 상당히 억압적인 곳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만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까닭으로 대학 시절의 저는 늘 대학의 주변 혹은 자면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국문학을 택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참상 책을 읽는 편이었어요. 책 읽기는 대학전공, 직업과 무관한 일상적인 일 즉, 아주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학 3, 4학년 때부터 일상과 공부의 서서히 결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으므로 국문학을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문학비평에 대해 강의하셨잖아요. 여성주의 비평이나 여성작가에 대해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려 했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여성주의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다면

학위 논문으로 준비했던 것이 소설에 나타난 근대성 수용양식이었는데요. 보통 근대성에 관한 한, 우리의 자료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져오는 특성의 일방향성만 드러나 있었어요. 우리는 제국주의의 타자 혹은 근대성의 타자라고만 규정되었지요. 그런데 실제로 소설에 나타난 인물들의 반응은 굉장히 입체적이거든요. 무조건 권력에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당하는데도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단 말이죠. 저항이라든가, 침묵, 분노, 혹은 억압 자체를 뒤집어 읽어버리는 전략을 읽었고, 그런 대응방식을 통해 타자성의 존재양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그래서 이미 위엄이 있었던 셈이지요. (웃음) 90년대 후반에 여성 소설이 갑자기 부상을 했죠. 공지영, 신경숙, 은희경 등... 어느날 갑자기 유명 서점의 베스트셀러는 거의 여성 작가로 채워졌고, 온 신문에 여성작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현상을 일단 주시했지요. 이런 소설이 이렇게 팔리나 될 판이었나 혹은 독자들은 무엇을 사도록 강요되는가?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공부한 타자들의 개념과 여성이 엮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일련의 베스트 셀러 작가로 부상한 여성작가들의 작품이 타자성을 부각시켰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강의 시간에도 신경숙이나 은희경 같은 작가에 대해 비판적이시던데

네, 상당히 비판적이예요. 이 소설들은 남성주체에 대한 타자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여성이라는 타자를 거러 다시 주체-타자관계를 재생산하는 측면이 강하지요. 타자 내부에서 다시 타자화가 시작되는 셈이지요. 여성적 글쓰기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이런 작가들은 여성주의 비평가들 보다는 남성 비평가들에게 호평 받습니다. 신경숙의 '종소리'도 지금 조선일보에서 문제의 아들다음이니 허여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주체화라든가 남성성의 언어 등을 여성적인 문제라든가 무조건 긍정해버리면 곤란하죠. 그런 문제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어 나온 것이라면, 주체함을 통해서 배제의 폭력과 그에 대한 저항 전략의 움직임까지 드러낼 수 있을 때라야 여성적 글쓰기라는 이름도 붙일 수 있겠지요. 이거, 말하다보니 강의 길이 되네요 (웃음) 하지만 요즘은 여성작가들이 그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타자들의 존재방식 자체가 주체에 의해 이미 선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의주시하는 태도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혼도 하신지 물렸거든요. 결혼 생활은 어떠신지?

처음 시작은 굉장히 고전적이었는데 결혼도 진화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은 안 하면 부자유스럽죠. (이해가 안간다는 표정) 왜 부자유스럽냐구요? 주위에서 계속 질문하죠. "왜 결혼 안 하느냐? 결혼한 상태가 정상이나까, 왜 안 했냐에 대해 온 세상에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내가 아들의 결혼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혼까지 가본다"고 생각했었어요. 대학이 탈고등학교의 의미가 있었듯 결혼도 탈 결혼 정도의 의미가 있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질문을 받지 않으니가 좋았지만, 살 자체가 엄청난 족쇄가 되어버렸죠. 결혼은 살 자체를 이식하는 일인데, 결혼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어 시작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참 대박이었다 싶어요. 그때는 사랑과 결혼은 곧 십리라는 통속이 강한 지배력을 가졌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은 학습하거나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뛰어 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지요. 결혼제도도 억압적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더 강하게 인지된 것은 나는 예외라는 환상이었지요. 그 환상은 소설과 영화에 널리 있었고요. 그러나 막상 내가족에 편입되어 가장 먼저는 생각은 스스로가 타자화되어 간다는 자각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다른 타자인 아이를 낳게 되니 자신도 아이도 다 낳았었지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모성애는 수없이 많은 인용과 반복을 통해서 새겨지는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나혜석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도 나혜석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게 저의 문제라고 느꼈죠. 예를 넣고 보니 지금 일을 너무 크게 저절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가 (웃음) 하는 느낌이 정확히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식구들 모두는 육아와 가사를 똑같이 하는 가족으로 진화되었어요. 그 과정은 아주 서서히 진행되었지요. 처음 남편이 집안에서 저의 일을 도와 줄 때는 굉장히 박해를 받았죠. 자랑 결혼해서 밥상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고 사이어 나가 박을 치면서 울었다는 거 아님니까 (웃음)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하면서, 그런데 조금씩 달이 커지듯이 변했어요. 남편이 살급살급 부엌에 들어오면서 시작해서 차츰 차츰 영역(을) 넓혀서 지금은 사이버저에서 나서는 커피 타고 아들은 실거주처라 하실 정도까지 진화가 되었어요. 온 식구가 육아, 가사를 나눠서 하고 예들도 자 연스레 같이 일을 하게 됨으로써 가족 모두가 친밀성의 영역안에 자리잡게 된 셈이지요. 그 과정에서 애가 어른을 키우기도 하고요.

지금 결혼 생활에는 만족하시겠네요?

네, 같이 사들이라 지금은 부산에 사들여 있고 다시 나들은 서울에 가서 생활해요. 누가 주사 파라고 하던데 (웃음) 그렇게 왔다갔다 하니 떨어졌다 다시 만나면 식구라도 굉장히 반갑죠. 여가에 있다 올라가면 서로 반가워서 온 식구가 거의 예민 같아요. 같이 노동하고 같은 공간에서 모든 감각을 함께 누릴 때 진정한 가족, 공동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대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절찬되었지만 김영연의 '서양 철학사의 구조와 과학'을 추천하고 싶네요. 글이 살아있거든요. 서양철학사의 구조를 생동하는 말로써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른 종류로는 조지 오웰의 '1984'나 '동물농장'을 권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책인데... (웃음) 권력의 얼굴을 똑바로 보게 해 주지요. 조지 오웰이 그 당시 스페인 내전에 직접 참가해서 거기서 본 진보세력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아주 잘 그려놓았어요. 극좌와 권력과 국주의 입장이동을 객관적으로 잘 보고 있어요. 혁명의 위험성에 대한 통찰이 있는 책이라 할 수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부산대학교 여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사랑, 연애, 결혼, 가부장제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결국 동일한 주체의 계통 발생어들이라는 것을 좀 명백히 인지해 줬으면 합니다. 이들을 분절시켜서 사랑 하나만 보는 경향이 강하단. 이는 명백히 기관처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라인이에요. 나혜석도 실재했잖아요. 사랑, 결혼, 가족 제도를 분리해서 보니까 그런 비극들이 탄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가부장제의 억압을 못 보게 되는 것이 문제지요. 그런 위험성 때문에 분리주의도 존재하지만, 그러나 대개의 경우, 어떻게 연애를 안하니까 (웃음) 자꾸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는 데... 연애하되, 앞서 말한 유가적 태도를 예의주시하면서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올해 선전물들을 보면서 '와, 저거 진짜 잘 만들었다'라는 경우가 많았어요. 주위 반응은?

잘 만들었다고 말씀해주시는 분이 많았어요. 올해 총학, 단건 물라도 선전물은 진짜 잘 만든다. 이런 반응들. 그림, 총학생회는 잘 못한다든 말이지 (웃음).

잘 만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라도?

사실 총학생회가 엄청 많은 선전물을 만들잖아요. 눈에 잘 띄어야 하니까 예쁘게 만드는 거 고민하게 되죠. 컴퓨터 한글에 글자본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예쁜 글씨 보면 따라하러는 욕심도 내고, 잡지 보다가 이미지 이쁘게 실린 광고를 보면 유심히 봐두었다가 써먹어야지 생각도 해요. 광고를 넘기다 보면 이 페이지는 대중적 감각, 이거는 어떤 때 써먹어야지 맘 속에 표시를 했다가 보통 그렇게 해요.

선전은 언제 배우셨어요?

선전하는 사람이 다 미친가? (웃음) 선전은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없거든요. 세대가 때 글씨를 잘 쓴다거나 예술 있어 보이면 선배들이 사귀고, 차츰 차츰 글씨도 못쓰고 남 흉내내기 시작해서 쓰는 거죠. 가끔씩 진짜 제대로 된 선배를 만나면 자기만의 노하우 전수해주거든요. 그런 거 배우고, 그게 다로 스스로 만드는 게 다예요. 과에서는 많이 안쓰니까 별로 쓰는 것도 없다가, 선거하면서 엄청난 선전물들을 쓰다보니 실력이 일취월장했죠. 2001년 가을 총학생회 선거하면서 선전일은 차츰 한 거라고 봐야죠. 요즘은 같이하는 후배들도 앞에서 따라하고 배우고 있어요.

원래 미술을 잘하셨나요?

미술학원에 다니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리는 거 좋아하고 소질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였는데 공부 잘하다가, 암암리에 미술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암암리 침울한 표정으로 안된다? 하는 거예요. 외삼촌이 미술을 하거든요. 집에 돈이 없어서 남 힘들게 공부하는 것을 보니까 암암리 돈 있는 집은 그런 것 못한다 그랬어요. 어린 나이에 상처받고 미술의 꿈을 버렸죠.

거창은 경호(7월), 대학 시절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저는 계속 과학생의 활동을 했는데, 2학년 때 과부회장을 했고, 3학년 때 과회장, 4학년 때는 봉사동아리 만들어서 활동했구요. 5학년은 여기서, 현재는 휴학중이고 학부총일 총학생회실에 있어요. (엘리트스라는 나의 놀람) 사실 알고 보면, 노가다예요 (웃음)

총학의 무름, 총학의 브레인이라는 소문이... 일하면서 힘들거나 보람있을 때는 어떤가요?

선전이 원래 제 일이 아니네. 사실 전 정책국장이거든요 (웃음) 일이 많았으니 잘하는 사람이 하면 빨리 되니까 질 좋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선전일이 노가다거든요. 무그리고 하다보면 무릎도 전박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같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시간에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다보니 제가 전담해서 하게 되고 그게 힘들어요. 보람된 거는요. 보통 문장 4층 대회의실에서 선전 작업을 하는데, 대형 컴퓨터를 켜놓으면 막막하거든요. 백자가 공도감을 주잖아요. 복잡하게 그려면 6시간 정도 걸리고 간단한 것도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도 다 하고 나서보면 진짜 뿌듯해요. 길게 달 때 안타까와도 되는 데, 굳이 따져서 보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쁘다는 말하는 거 들어도 뿌듯하고, 수고했다는 말 들어도 기분 좋고, 그럴 때 보람을 느껴요.

일반학우들(은) 총학생회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집행부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니까 되었어요?

올해 '우리PNU' 총학생회의 저보와 포스터, 대형걸개들은 정말로 참신했고 경탄스러웠다. 존스라는 사진 하나에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문구 하나, 이런 것이 기존의 학생회의 것이었다면, 올해의 총학생회는 확실히 달랐다. 이 선전물들을 담당한, 자신과 똑같은 선전물들은 만드는 우아하고 섬세한 신주영(99국어국문학과)씨. 바둑 정식칙칙은 정복국장이지만 선전도 함께 맡고 있었다. 바쁜 일정에 밀려 여러 번 미뤄 잡은 인터뷰 약속. 마침내 5월 27일(화) 저녁 9시 학자수실에서 그녀와 마주했다. 붉은 패턴이 잔뜩 묻은 바지를 걸러서 작업복이라는 그녀, 참 바쁘지만 즐거워 보였다. 인터뷰를 마치고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선전작업을 해야한다며 종종 사라졌다. 다음은 그녀와의 일문일답.

전선기로 결합했어요. 선기를 같이 준비한 사람들이 당선이 되면 학생회를 꾸리게 되고, 주변 사람들 설득해서 같이 학생회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학생회가 너무 폐쇄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기초에 새내기 집행부 모집한다고 광고를 낸 적이 있어요. 누구나 같이 시작하겠다는 거죠. 사실 운동에 관심 없더라도 학생회 문제에 관심 있는 학우들을 많았어요. 그런 분들과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과를 물으니 실례할래 고개를 저으며) 한 명도 부산대는 아직 그런 문화가 안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분들도 있네요.

총학생회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부탁드려요.

학생회에 여러 자치활동단위가 있죠. 그 중에서 학생회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장을 받아왔고 가장 큰 권리와 규정을 가지고 있죠. 과학생부터 단대학생까지 있는데, 총학생회는 그 단위를 포괄하는 학생회 단위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단위구요. 여기서 학생회 가치관이 개입되는데, 넓게 본다면 대학사회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집단, 대학문화를 이끌어 가고자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사상을 많이 녹여내고 하죠. 한 단어로 정의 내려기는 힘들어요 (웃음).

주영씨가 바라는 대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자유와 공존이라고 생각해요. 자유로운 개성인들이 스스로 자유로움을 분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고, 그것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공존을 통해서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유로운 인간들이 공존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총학생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안되죠 (웃음). 현재 부산대는 자치도 많이 적은 편이에요. 정당의 학생위원회도 활동하거나 자발적으로 생겨난 안티조진 같은 모임도 있잖아요. 부산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학생회로 많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운동뿐 아니라 문화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총학생회에 거론공안한다고 잡히 버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 옛날에는 전혀 없었는데 요즘에는 좀 있어요.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 서툰 것 같아요.

전로는 어떻게 잡고 있나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급하게 생각 안하거든요. 지금은 총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방향잡기 하고 있는 중이고, 방향잡기 속에서 무엇을 할지 드러날 것 같아요. 일은 저서는 방향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일을 하겠죠. 화시에 취직할 생각은 없고, 단골로 성취감 느끼는 것을 좋아해서 나를 표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고요. 가장 익숙한 방법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커는 지리(국문)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문과가 밖으로 보아는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차라리 미학이나 그런 쪽으로 공부해볼까 그런 생각하죠.

후배들에게 가장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싫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좋겠어요. 생각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귀상)이라는 문하서문에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분이 귀상 스승들 두 배 문집 서문 인사말을 써준 게 있는데, "스무 몇, 몇몇에 유혹되지 말라"라는 말이었어요. 그 뒤로는 제가 계속 바퀴로 스물 스물 살인 뎀스 볼 뎀스, 스물 세 살인 뎀스 "스물 몇 몇몇에 유혹되지 말라." 지금 새끼들아 후배들이 몇몇에 유혹해서 걸음을 남비하지 않았으면 해요.

총학생회 끝나고 나면 한동안 손놀았던, 최근 개발중인 취미, 대금불기를 다시 시작할 거란다. 김경식과 이상은을 좋아한다. 그녀, 열심히 살리고 싶었다. 막상 졸업한 한 학기 앞두고 나니 졸업하기 아쉽다. 대학생활 안해본 게 있어보이는 그녀에게 권하하냐고 하고 싶은 게 뭔지 물었더니 잡지를 만드는 것이란다. 지금 PNU를 만들고 있지만 시간과 여건이 안맞아서 안타깝다. 말하라는 여유가 좀 있으니까 잡지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 끝까지 아름다운 선전물들을 만들길 기대하면서, 그녀의 미래가 사뭇 궁금해진다.

부산대 여대생 취업 실태!

Plese, 부산대 여대생의 잡(job)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글 | 팔두(bodrawn@hanmail.net)

입

학초, 난 정말 부산대가 싫었다.

입학통지서를 받고 등록금을 내러 온 날에도 작은 눈을 뚫뚫 흘리며 애꿎은 정문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던 나.

똥이 그렇게 잘났다고 뭐, 할말은 없다. 당시에는 내가 정말 잘난 줄 알았으니까.

원했던 고교 동창생들은 서울 소재 대학에 간다고 조아라 하는데

난 등록금 싸다고 얼마 등에 떠밀려 생각지도 않았던 부산대에 4여년을 켜야 한다니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억울하게 느껴졌으니까.

한강이남 최고의 대학이니 부산에서는 알아 준다더니 하는 말은 길가에 놀러 붙은 개똥만큼도 가치 없게 들렸다.

오로지 '지·방·대' 부산대학이라는 것만 내 눈과 귀를 괴롭혔을 뿐.

하지만 어쩌랴, 수는 새로 칠 돈도 없고 자신도 없던 나는 없던 애교심을 있는 대로 끌어 모아

학교를 내 집처럼 동이리는 내 방처럼 생각하며 학교 곳곳을 쏘다녔다.

그랬더니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여름철 나무 향기도 상그럽고 약대 건물 앞 우거진 숲도 멋있게 보이는 등 이쁜 구석도 한둘 생기기 시작했다.

게다가 모두다 서울로 서울로 뿔치고 있는 현실에서 단지 지방대라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불신한다는 것은

서울 공화국이라는 뉘를린 사회 구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반성을 하며 최선을 다해 캠퍼스 생활을 하리라 마음먹게 되기도 했다.

부산대 여대생 취업전선 문제있다!

그·러·나, 취업을 준비하면서부터 3년 동안 폭죽 쌓아왔던 나의 애교심은 언어공주의 물거품처럼 가지않게 사라졌다. 오히려 100여 만원씩 내는 등록금이 어디로 쓰이는지 회계장부라도 뒤져서 찾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나의 시기와 결투를 한 몸매 받고 서울소재 모 대학에 진학했던 친구와 비교하면 내가 쥐고 있는 취업 정보들은 인터넷 몇 시간 쇼핑하면 누구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널리고 널린 정보 그 이상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대학에 간 친구는 이랬다. 입학 후 학교에서는 적성에 맞는 학과 선택 가이드를 소개했고, 여대생 취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가르쳤다. 2학년이 되어 올라가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정보와 인턴십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리더십 트레이닝 이과 조직관리 기법과 관련된 강의를 열었다. 3학년이 되어서는 학교 취업정보실에 찾아 가서 친절히 상담을 받고, 원하는 업체와 분야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를 얻은 후 지금은 면접과 이력서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받고 있다고 말이다. 친구는 자기 적성과 맞는 기업체 조직 스타일과 최근 동향, 어디서 얼마나 인력을 뽑을 것이라는 정보까지 넉넉히 나에게 전달했다. 사실 처음에는 친구가 학교 자랑하는 것처럼 들렸을 뿐, 학교에서 그만한 정보를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더군다나 여대생 취업이 어려운 만큼 여대생에 맞는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예찬' 그 자체였으니까. 솔직히 진짜 조금해졌다. 난 고작해야 토익과 영어 준비 열심히 하고 인터넷 수시로 쇼핑하고 학점 관리 잘하면 취업에 절대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만 했지 인턴십 활동이 취업 때 유리하다거나 면접과 이력서가 취업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은 4학년 내내 한번도 해보지 못했다. 더군다나 여성의 승진 전략과 조직 관리 능력까지 미리 익히고 있다는 친구의 말은 내가 꼭 그 친구와 10년은 뒤떨어져 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헉!

취업 정보의 바다에서 제발 헤엄치고 싶다

여기서 잠깐, 우리학교 보통 여대생들의 취업 준비 정보를 살펴보자. 어디까지나 내 주변 이야기가기는 하지만 나와 내 친구들이 몸소 경험했던 이야기니까 놀랍지만 정말 사실이 다.

우리학교에는 장학담당관실이라는 곳이 있다. 최근에는 문화복지부라는 곳과 합쳐져서 취업을 담당한다고 하지만 우리 여대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여대생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요량으로 방문하면 "취업난이 누구든 다 심한데 여학생들을 위해 취업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냐"고 답한다. 뭘, 여기까지 그냥 넘어가자. 그나마 얻을 정보라도 있으면 괜찮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인력 채용 정보도 얻기 힘들다. 기업체가 학교로 보내온 종이 쪼가리 몇 장 달랑 게시판에 붙여 놓는 것을 제외하고는 밥 먹고 편한 에너지만 소비했다는 생각만 든다.

학교 홈페이지 어디 한번 들여다볼까. 다 학교가 취업 전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학교는 달랑 게시판 하나에 취업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그것도 역시 인터넷에 급방 찾을 수 있는 정보나 채용 설명회 소개에 지나지 않는다. 약오르자만 이화여자대학과 비교하자면 이화여대에서는 진로교육·상담·선후배간의 만남·취업 통계 등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하며 취업 준비를 하게 돕는다.

여대생 취업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은 있나? 그나마 여성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서 여성학과 여성과 직업이라는 과목을 개설하고 있지만 역시 전문적인 취업 준비 교육이라는 것보다 그야말로 교양수업에 지나지 않는다. 취업 기술이나 취업 후 전략에 대한 수업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어디 이것뿐이라. 최근 총여에서 주최한 취업기술 강좌에 참여한 모 공과계 여대생은 학과 교수가 노골적으로 남학생 위주의 취업 정보만 전달한다고 하소연을 했다. 어떤 과는 아예 성적이 상관없이 남학생들을 우선해 추천서를 배분한다고 하니, 이 녀의 학교를 눈을 씻고 귀를 보아봐도 웃은 난만 마냥게 생겼다.

부산대는 똥이다

우리학교 여대생의 평균 취업률은 평균 50%를 조금 웃돈다. 그것도 편법을 써서 결혼·대학원 진학·유학 등을 모두 취업에 포함되어 계산한 숫자라니 실제 취업률은 50%도 훨씬 낮고, 여기에 비정규직이 상당 포함된다 생각하면 거의 바닥을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똥 학교에서는 정확한 통계나 조사사업도 진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끔찍한 취업률은 나 역시 똥만 짓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등록금은 다 어디다 쓰는지 알 수가 없다. 한태평양 핵심역량대학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비전 있는 대학을 만들어 갈려면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지 않은가. 자유로운 대학 문화가 숨쉴 수 있는 곳(이것도 똥점이다. 학교 효율화한 한번 가보시라. 어디 공연 한번 할 수 있는지), 좋은 학술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연구비 지원 무지하게 안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적성과 관심을 살려 취업 준비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태평양 핵심역량대학의 필수 조건이다. 이란테어는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특히 앞서 말했지만 취업 준비는 학생들의 자율성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고, 여대생 취업 준비는 완전 허-완전히 장이다.

필요 없는 본관 리모델링에는 2억이나 쓰면서 여대생 취업담당 인력 확보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장학담당관실은 한 직처럼 학생회관에 모셔두면서 학생들 발길을 뚝 끊어버리게 하는 총장의 경영전략, 정말 똥똥이다. 똥똥!

물론 취업을 위해 개인의 노력보다 학교 자체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준비는 당연히 해야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자체의 적극적인 준비와 후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왜 우리학교 학생들이 면접 때 똥똥 떨어지는지, 그것도 여대생의 취업률이 50%도 안 되는지 제발 머리를 좀 굴려 주었으면 한다.

현재 총장님, 그리고 앞으로 총장이 되실 어떤 분- , 머리는 몸통에 얹쳐주는 옵션이 아닙니다. 등록금은 판공비 보태 쓰라고 내는 것도 아닙니다. 제발 굴릴 때 굴리고 쓸 때 쓰십시오.

취업, 준비하십니까? 취업강연 스케치

취업파트 담당을 맡은 친구가 취업강연회 기간 중에 면접을 보고 합격해서 직장으로 가버리는 동안, 많은 일감들이 고스란히 내게 넘어왔다. 원래 담당도 있었는데 거기다 이 일까지 보태져서 일복이 터졌다. 덕분에 취업강연회를 잘 듣기는 했으나 노가다로 힘들었고, 한턱내라는 말만 듣고 버렸다.

취업강연회는 주요공약사항 중 하나이다. 이번 상반기 취업강연회는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 10강이 진행되었다. 1강-2강은 성공면접을 위한 능력 향상과 취업의 구체적인 준비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3강-10강은 진로탐색을 돕도록 전문직 종사자들을 모셔 경험담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2강은 이를 연달아 했고,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각 4시간, 3시간씩 연강을 하였다. 여대생 취업제와 살아있는 전설(5 전 이화여대 취업정보센터 실장)이었던 표경희 선생님께서 알아주셨다. 지난해에도 총여의 초청으로 부산대에 오셨는데 그때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강연 중간중간에 사는 지역이라든가 과의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게 취업원서를 특별선불로 주시기도 했다. 지난해 한 학생에게 광장기 유명한 로밍의 원서를 주었는데 그 언니가 면접과정에서 떨어졌다며 "부산대는 애들도 똑똑하고 다 좋은데 면접을 못본다"며 아쉬워하셨다. 그리고 이번에는 면접 보는 사람들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하셨다. 매우 낮은 시간에 강연이 끝났고, 여행과 강연으로 피곤한 선생님을 따라가(선생님 고마워요) 다른 학교들의 취업실태에 관한 이야기 듣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찾날, 폭우가 쏟아져서 사람들이 못나올까 걱정했는데 많이 왔는데 120여 명이 자리를 메웠다. 둘째 날에도 대박이었다. 낮은 시간까지 강연이 이어졌는데 일어서는 사람이 거의 없어 취업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었다.

3-10강은 매주 화, 수(혹은 목)요일에 열렸다. 중도 1층 시청각실에서 열렸는데, 강연회 때마다 50명에서 120명 정도가 강연을 들었다. 동문들을 중심으로 변리사, 카피라이터, 회계사, 외국계회사, 대기업 홍보팀, 관세사, 컨설팅 기획사, 노무사 등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



생존전략 총여학생회

김장희장강동, alokid@puhcaul.com

을 하시는 분들을 모셔 직업생활과 직업탐색과정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강연을 오시는 분들이 다들 저마다 준비를 많이 해오셨고 알찬 강연을 해주었다. 특히 카피라이터나 외국계 회사의 경우는 정보가 많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사이트와 취업 방법을 친절히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외국계회사의 강연회 때는 남는 좌석 없이 꽉 찼는데, 여대생들의 외국계회사 선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강연에 나온 각종 중에 관심 있는 분야는 없었지만, 취업준비과정 이야기며 직장생활에 얽힌 에피소드들이 흥미로웠고, 각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삶의 에너지가 확 느껴져서 좋았다. 마지막 강연이 끝나고 우연히 한 참석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강연회를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며 4학년 휴학 중인데 진로탐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그동안의 고생이 한마디로 기뻐졌다.

막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취업특강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 부산대의 여대생들 취업률이 정말 심각했다.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원하는 것은 99%인데 실질취업률은 50%에도 못 미친다. 부산대는 국대대라 그런지 배방을 뿌리며 취업률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취업담당관실 자체의 인력확충도 필요할 뿐더러, 여대생 취업이 가지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여대생 취업담당자도 따로 두어야 한다. (그리고 취업뿐 아니라 적성탐색의 기회도 늘려야 할 것이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부산대는 '지방대' 이고, 정보에 소외되기가 더 쉽다. 오히려 학교측의 더 많은 투자가 있어도 모자랄 판에 너무 안이한 대처다. 이번 행사들은 총여와 여성연구소가 공동으로 준비했고, 여성과 직업의 강연을 받고 계신 문소정 교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2학기에도 다양한 각종의 사회생활을 하시는 여성분들을 모시고 강연회를 할 예정이다. 앞으로 학교측에서 더 분발해서 더 이상 총여에서 이런 강연을 준비할 필요가 없길 바란다. 취업을 꿈꾸는 당신, 분노하라! 그리고 부산대, 정신 차라시오!

www.pnuherstory.net 31

신입생 환영 문화를 되짚으며 상상력의 빈곤에서 벗어나기

(HerStory) 4호에 실렸던 손김현정의 새내기 환영을 위한 놀이기획서가 작업과정상의 실수로 이에 정정본을 다시 실습니다. (HerStory)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이와 같은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 | 손김현정 부산대학교 대학원예술경영, 문화정책 전공 royabee@hanmail.net

<2003년 고고학과 신입생 환영 행사 기획서>

* 이 기획서는 특정학과를 중심으로 그 학과에 맞게 구체적으로 쓰여질 것이므로 읽으면서 참고하실 것 바란다. 고고학과로 정한 이유는 필자가 고고학과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 외의 이유는 없음.

신입생 환영을 위한 놀이

어느 봄날의 유혹

제작: 손김현정

목표: 대학을 이제 막 들어올 새내기들에게 대학의 참 맛(이름테면, 학문정보, 캠퍼스 지리정보, 학과 공동체의 정(精) 등)을 알게 하고, 앞으로 생활할 고고학과에 매력에 꼭 빠지도록 철저하게 유혹하기. 그리하여 새내기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극대화한다.

- 권위주의의 놀이문화로 점철되어 있는 대학 내의 분위기의 틈새를 철저히 활용하여 권위적이지 않은 새로운 놀이문화를 소개하여 학과 자부심을 높인다.
- 대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만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새내기들의 감수성을 잘 파악하여, 새내기들이 놀이문화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대상: 고고학과 03학번 새내기들과 그 외 선배들

일시 및 장소: 2월 모일 이틀 동안, 고고학과 아지트

※ 각별히 후배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인문대의 살인적인 추위를 미리 소개할 필요는 없을 듯.

프로그램: [학교 안 행사] 첫째 날

- * 새 이름 만들어 소개하기
- * 대학 교재 교환을 위한 베퉁시장
- * 부산대 캠퍼스 지리 익히기를 위한 캠퍼스 방문기 - 캠퍼스 지도 참조

[학교 밖 행사] 둘째 날 (*각 학과의 특성에 맞게 학교 밖의 공간을 선정)

- * 씨네마 테크-영화보고 이야기하기-거의 모든 학과에 적절
- * 박물관 관람 후 이야기하기 - 예) 고고학과
- * 거제 조선소 방문 겸 거제도 엠티 - 예) 조선, 해양 공학과
- * 박경리 문학기념관 - 예) 국문과
- ※ 박경리 문학기념관: 숙박 시설과 세미나 시설이 되어있어 단체 인원이 방문하여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좋은 공간임.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742-9 원주지 중심, 영동고속도로 원주 인터체인지에서 내려 시내로 진입, 서원대로변 끝 부분, 한국도로공사 공사가 조성하고 있는 박경리 기념공원 내)

행사는 크게 학교 안 행사와 학교 밖 행사로 나뉘는데, 학교 안 행사는 처음 대면하는 사이인 만큼 어색함을 고려해서 학교 안에서 놀이문화를 진행한다. 둘째 날은 학교 안을 벗어난 만남으로 자칫 대화의거리들이 궁색해 질 것을 감안해 새로운 이야기의 내용들을 부여할 만한 기제들을 이용한 만남이다. 이를테면, 영화와, 박물관, 미술관의 유물과 미술작품이 이야기 꺼리가 되며, 토론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아래 표 참조]

서막한 느낌

친근함으로 유도

100% 유혹

첫째 날				둘째 날			
프로그램	새 이름 만들어 소개하기	베퉁 시장	캠퍼스 방문기	씨네마테크 영화 보고 이야기하기	박물관 보고 이야기하기	거제도 조선소방문 및 엠티	박경리 기념관에서 의 시간들..
세부 목적	대학의 고질적인 학번 서열을 뚫고 새로운 장을 열어준다. 새내기들이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학과 공동체의 정(精)을 알게 한다.	대학의 고질적인 학번 서열을 뚫고 새로운 장을 열어준다. 새내기들이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학과 공동체의 정(精)을 알게 한다.	대학의 고질적인 학번 서열을 뚫고 새로운 장을 열어준다. 새내기들이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학과 공동체의 정(精)을 알게 한다.	대학의 고질적인 학번 서열을 뚫고 새로운 장을 열어준다. 새내기들이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학과 공동체의 정(精)을 알게 한다.	대학의 고질적인 학번 서열을 뚫고 새로운 장을 열어준다. 새내기들이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학과 공동체의 정(精)을 알게 한다.	대학의 고질적인 학번 서열을 뚫고 새로운 장을 열어준다. 새내기들이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학과 공동체의 정(精)을 알게 한다.	대학의 고질적인 학번 서열을 뚫고 새로운 장을 열어준다. 새내기들이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학과 공동체의 정(精)을 알게 한다.
시행 방법	각자가 자기의 정체를 숨겨서 서로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권위가 아닌 친근함으로 서로를 만날 수 있도록 한다.	각자가 자기의 정체를 숨겨서 서로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권위가 아닌 친근함으로 서로를 만날 수 있도록 한다.	각자가 자기의 정체를 숨겨서 서로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권위가 아닌 친근함으로 서로를 만날 수 있도록 한다.	각자가 자기의 정체를 숨겨서 서로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권위가 아닌 친근함으로 서로를 만날 수 있도록 한다.	각자가 자기의 정체를 숨겨서 서로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권위가 아닌 친근함으로 서로를 만날 수 있도록 한다.	각자가 자기의 정체를 숨겨서 서로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권위가 아닌 친근함으로 서로를 만날 수 있도록 한다.	각자가 자기의 정체를 숨겨서 서로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권위가 아닌 친근함으로 서로를 만날 수 있도록 한다.
주의 사항	• 절대 학번을 표기하지 않는다. • 신임생과 재학생 모두 표기해볼 것 • 상호 존대함을 써볼 것!	• 절대 학번을 표기하지 않는다. • 신임생과 재학생 모두 표기해볼 것 • 상호 존대함을 써볼 것!	• 절대 학번을 표기하지 않는다. • 신임생과 재학생 모두 표기해볼 것 • 상호 존대함을 써볼 것!	• 절대 학번을 표기하지 않는다. • 신임생과 재학생 모두 표기해볼 것 • 상호 존대함을 써볼 것!	• 절대 학번을 표기하지 않는다. • 신임생과 재학생 모두 표기해볼 것 • 상호 존대함을 써볼 것!	• 절대 학번을 표기하지 않는다. • 신임생과 재학생 모두 표기해볼 것 • 상호 존대함을 써볼 것!	• 절대 학번을 표기하지 않는다. • 신임생과 재학생 모두 표기해볼 것 • 상호 존대함을 써볼 것!

*더욱 자세한 준비물 및 예산 등을 기획서에 표기하는 것이 좋지만, 자연 관계상 프로그램 소개로 만족하고, 혹은 본 기획에 관심이 있거나 문의 혹은 판지를 받고 싶으신 분은 royabee@hanmail.net으로 편지 보내주세요.

영악한 꼬마와 돌마니

글 | 레아

어저께 초등학교 동창들을 잠시 만나게 되었다. 한 명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울고 웃었던 온갖 추억들을 함께 하고 있는 친구이고, 한 명은 군대 휴가 나온 친구이고, 마지막 한 명이 14년 만에 만난 명화라는 친구였다. 너무도 오랜만에 만났지만, 어린 시절의 모습에서 그대로 튀어나온 듯이 자그마한 체구에 예전의 그 새침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명화를 나는 영악하다, 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아이로 기억하고 있었다. 짧게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지난 기억들을 마구마구 불러냈다. 숨이 막힐 만큼.

어린시절, 그것도 초등학교 1,2학년 무렵의 나는 지금보다 훨씬 똑똑했고 얌미더러 '치마 입고 안오려면 학교 오지 마라'며 으름장을 놓던 썩가지 없는 아이였다. 제법 공부도 잘 해서 우리 가족의 자랑거리였던 것 같다. 그런 내가 언제부터 주눅이 들고, 수그러들게 되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는 있다. 14년만의 후후를 한 명화라는 그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의 내 어린 시절 한 구석을 지금도 오뎝이 차지하고 있는 친구다.

명화의 집은 (내가 생각하기에) 으리으리한 부자였다. 거실에는 신나게 생긴 소파에 뽀까뻬리한 가구들이 있었고, 그 옆에 방에도 의자와 테이블이, 피아노와 침대가 가득 들어차 있었다. 언젠가 그 집에 놀러갔을 때 어린 내 눈에 그 집의 가구들은 전부 커 보였다. 누구누구는 용돈을 일주일에 7만원이나 받는다더라, 는 소문의 주인공, 공부도 잘해서 선생님에게 귀염도 많이 받았고, 남자애들한테 인기도 많았던 당찬 여자아이, 그에게 명화였다.

그 당시 3학년 4반인 우리반에는 두명의 여자아이와 라이벌 관계에 있었는데, 한명은 문희라는 아이였고, 또 한명이 바로 명화였다. 둘다 잘사는 집 아이였다가 주위에 친구 몇몇을 항상 거느리고 다녔다. 어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둘은 거의 노골적으로 으르렁대고는 했던 것 같다. 문화가 자기 친구들과 함께 '꾸러기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 하

나의 조그만 집단을 형성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명화는 '꿈나라 클럽'을 만들었다. 꾸러기 클럽은 1주일에 한번 정도 모여서 양말을 만들어본다든가, 종이접기를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였고, 뒤늦게 창설된 꿈나라 클럽도 명화의 욕심껏 적극적인 활동들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에게 충실한 돌마니였던 것이다.

어쩌다가 친해지게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명화와 꽤 친한 편이었다. 나는 꿈나라 클럽의 회원이었고, 한동안은 명화와 계속 붙어다녔던 것 같다. 명화의 집에서 피아노도 처음 만져보았고, 그에게 멋진 반주에 맞추어서 친구들과 함께 차를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때웠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에는 모두에게 친절했지만 적절하게 남을 아용할 줄 알았다. (달리 쓸 말이 없군) 사실 어린 시절의 내가, 너무도 완벽한 환경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에게도 경도되어 항상 주눅이 들어 지냈던 것은 아니었다. 명화가 꿈나라 클럽이라는 것을 만든다고 했을 때, 혹은 피아노를 가르쳐주는 조건으로 내게 어렵게 얼마간의 보수를 요구했을 때, 나는 그런 것들이 꼭 절실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대번에 고개를 끄덕여 그 에의 뜻대로 행동했던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체구의 그에게 안쓰러워보여서 그런 것이기도 했고, 그 아이의 콧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랬던 어린 시절의 친구는, 새침하던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지만, 사람을 대하는 품새가 많이 달라진 듯했다. 약간은 어리버리한 말투에 가득 넘치는 예고, 나는 그것이 그에게 나름대로 사춘기를 거치면서 터득한 생존전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영원히 그대를 지켜줄 것 같았던, 으리으리한 가구와, 피아노와 웅장실, 그 아이의 총명함과 영악함은 그보다 조금 더 자랐을 때에는 오히려 그에게 고민과 부끄러움으로 반전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에도 변했고, 나도 변했다. 그렇게 변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새삼스레 시간의 무게를 이 느껴졌고, 내가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마구마구 튀어나오는 그 어린 날의 기억들이 아주 조금 쓸쓸해졌다.

알아동안 술자리 때마다 그때 일을 좀더 자세히 듣고 싶었다. 친구들에게 그때의 정황을 상세히 듣고 싶었다. 가해자로서 내가 쉽게 잊고 지나간 것들이 절씨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궁금해졌다.

그나마 절씨구와 친분이 있었던 한 친구에 따르면, 때마침 사춘기에 접어들어 절씨구에게 목소리는 큰 콤플렉스로 작용했다. 그는 전학을 결심하기도 하고, 언니를 통해 나에게 대한 원망을 표현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보니 나는 누나로부터 "절씨구랑 친하게 지내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그 이유를 몰라서 "내가 왜 친하게 지내야하는 데" 하고 말았던 것이다.

어떻게든 절씨구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10년이나 지난 일들을 다시 꺼내는 것이 절씨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하지 않았다. 당장, 너무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서 그를 어떻게든 만나 "미안하다, 절씨구야,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는 말은 차마 꺼내지도 못하는, 미안하다는 말만을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있었다.

그러나 절씨구가 고향을 떠난지는 오래되었고, 그를 만날 기회는 요원해졌다. 가끔 명절에나 큰덕에 들른다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엔 오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사과할 기회를 잃은 것이다. 그러던 그해 가을, 추석날, 길가에 인접한 그의 친척집을 지나다 분명 어떤가 불리지만 낮익은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절씨구의 목소리였다. 나는 담백 아래 서서 "절씨구야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너무 몰랐다. 상처받은 너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미안하단 말이 너무도 모자라구나" 그렇게 미안하단 말을 속으로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절씨구네 친척들이 대문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려서 나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 미안하다는 말은 아직 하지 못했다. 그날처럼 내가 초라했던 때도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그때 불시에 드는 질문 하나 "나는 정말 미안하구나 했던 걸까?" 그런 질문들에 사로잡혀 나는 그에게 사과할 기회를 아직도 회피하고 있다.

초딩 동창을 만났을 때

글 | 김미란

세월이 흘러 내 나이 이제 27, 별세 23세이다. 결코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예전의 앨범들을 보고있으면 괜히 내가 복삭 늙어버린 듯한 기분이 든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찍은과 꼭두각시 춤을 추는 사진, 친구들과 맥도날드에서 생일고양이자를 쓰고 생일잔치했던 사진 등을 보고있으면 나는 어느새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있다.

얼마 전 우연히 길을 가다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를 봤다. 많이 친했던 친구였기에 한눈에 알아본 것이 이상할 것도 없었지만 난 오히려 그게 더 놀라웠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한지 10년만에 처음 만난 것인데 친구의 외모는 별로 변한 게 없었다. 단지 키가 좀 더 커지고, 얼굴에 시간의 흔적이 조금 들어가 약간 성숙해 보인다는 것이외에는 다 똑같았다. 그 순간 그 친구랑 재잘대며 함께 놀았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나마 잠시 얘기를 나누다보니 그 친구는 예전의 내가 알던 초등학교 단과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초등학교 이후로 그 애가 서울로 전학을 가는 바람에 그동안 만나지 못해서 그런지 현재의 그 애와 예전의 그 애의 간격이 너무 커 쉽게 적응이 되지않았다.

그땐 그랬지

글 | 노란우산

대학교 2학년 겨울, 초등학교 반장회라는 곳에 나가보았다. 사실 나는 대학교년시절 천방지축으로 싸돌아다녔서 뻘은 인간관계가 너무 많아 그 사람도 제대로 커버못해서 허덕대기 일쑤였고, 또 다른 7 만남을 가질 생각은 눈곱만치도 없었다. 더구나 좋아하던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편한 우정을 나누었던 아이도 없었고, 무엇보다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터라 반장회는 관심도 없었다. 근데 아이리브스튜디오에 알봉에 가입되었는지, 꼭 나오라는 개인적인 메일이 반가웠는지, 너무나 할 일이 없었는지는 기억나진 않지만 어쨌든 약속장소에 나가게 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묘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많이들 변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명의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었다. 조금 눈에 익을 때쯤 하나둘 어린 시절의 얼굴들과 겹쳐지기 시작했다. 반장회에 나가면 꼭 한 명씩 조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반에는 조폭은 아니지만 끔찍한 양치기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친구도 있었다.

그 모임 이전에도 몇 명의 모임이 있었던 듯 하고, 지난번 모임과 개시권의 화제들의 연장선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단연코 그때의 화제는 공주님이었던 A가. 반에서 여자애들에게 인기가 많던 M을 차지하기 위해 당시 M에게 눈독을 들이던 B를 화장실로 불러내어 협박한 사건이었다. 두기를 품은 그녀의 위협에 B는 밤잠까지 설치고 끝내 M에게 다가가지 못했다고 그동안의 모임에서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A는 아시같은 미소를 지으며 끝까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했다. B는 당일 어학연수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전화로 참석해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오, 얼마나 지독한 기억이었으면 멀리 전화로까지. 그뿐 아니었다. 누가 누구를 좋아했다는 사건들은 왜 그렇게 많았던지. 패션에 무지하고, 도라이마를 시뮬리게 생각했었던 당시의 내가 알리 먼무한 이야기였겠으나, 그 모임에서 난 반에서 일어났던 소소한 연애사 하나 제대로 몰랐다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그래, 그런 세계가 있었구나. 나는 왜 몰랐지.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친구들이 나에게 집에 알뜰 들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부모님이 걱정하시겠다며 말했다. 초절정 범생이었던 어린 시절과 다년에 걸친 폐인생활로 웬만해선 집에서 전화도 오지 않는 지금이 극적으로 대비되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거기서, 사실 나 폐인이라, 집에 늦게 가도 전화도 안 와, 이런 말은 괜한 오마로 비칠

성격도 많이 변한 것 같았고, 철도 많이 들어 생각도 깊어졌고 또한 차분했다. 많이 친했던 친구라 너무 반가웠지만, 그동안의 세월이 백이 되어 딱상 말을 하다보니 금세 할말이 없어져 서로 계속 안 밀간다. 이렇게 만나자다니 너무 반갑다' 이 말만 되풀이하다 결국은 연락처만 교환하고 꼭 다시 연락해서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헤어지게 되었다. 김도습은 너무도 익숙했지만 그 이외의 다른 많은 부분은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던 많은 오랜 낯선 시간들 때문에 어색했다. 오히려 그 친구를 만나기 전에 사진을 보며 느꼈던 친근감이 더욱 컸고, 그 친구를 만난 후에 예전에 함께 했던 사진을 다시 봤을 때는 괜히 예전의 그느낌이 나지 않고 약간 낯설었다. 그래도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인데 하는 생각에 친구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았다. 그러나, 할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친구가 전화를 받자 무슨 말을 해야할지 난감했다. 결국 우리는 각자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는 말들로 서투른 의사소통을 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난 생각했다. 좋은 관계가 영원한 것도 좋겠지만 내 인생이라는 책의 한 페이지에 그 친구를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간직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물론 그 생각이 내 섭섭함과 아쉬움에 대한 위안일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초등학교 그 시절에 우리는 많이 친했었고 서로 같이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한 것은 사실이니 말이다.

것 같아 살포시 웃으며 관찰다고만 받았다. 환상을 깨가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그런 수고로움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세월의 흐름이 신기하다는 묘한 느낌과 감동도 잠시, 새벽까지 이어지는 그 모임에 계속 앉아있는 것이 싫증나기 시작해 짐을 꾸려갈 일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자주 온 연락들에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초등학교 시절,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다. 그 땐 정말 똑똑했는지 아니었는지 확답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무척 존스러웠던 것만은 사실이다. 학교에 체육복을 교복처럼 입고 다녔다. 아마도 몰라서 그랬던 것 같다. 한 번은 어떤 이유에선지 잠옷 같이 입던 옷을 입고 등교를 하다, 이 이런 옷도 입어도 되는구나 놀랐던 기억이 있다.

엄마의 센스가 좀 떨어져서 그런 건지 바쁘서서 그런 건지 몰라도, 명색이 딸인 나의 패션이나 청결상태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같은 부모 아래라도 여동생은 잘못을 지키며 멋을 내고 여러 스캔들을 만들고 다녔지만, 난 영 아니었다. 어쩌도 나는 꾸밀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듯 하다. 엄마가 같은 학교 선생님이라서 선생님들보다 나를 잘 몰라주시는 편이었고, 머리만 밀고 개기면서도 성적을 잘 받는 편이어서 학교에서 별다른 부대낌도 없었다. 그 천상천하유아독존이었던 그 시절,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당당하게 의견을 피력하다 못해 때때 우기는 수준까지 가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서 제멋대로 굴었던 기억도 있다. 착하다는 평판이 자자했으나(어, 정말이다) 정말로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은 배우지 못했던 그 시절, 그래서 그런지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면 내가 무척이나 미든 기억은 있는데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은 없다. 이야기를 듣다가 해가지 다른 사람을 알 수 있지 않나.

동상이몽 분명히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했었으나 그들과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공통의 화두가 언제나 과거에 머물렀다면 좀, 끔찍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지금의 이야기를 나누기엔 세월이 벌여놓은 간격이 너무 크고, 돌려서, 심수년 후에 지금의 대학시절 친구들은 다시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그렇지않기를 빌고 있지만, 그때도 씁쓸한 감동만을 느낀다면 난 좀 슬플 것 같다.

초딩 동창을 다시 만났을 때, 나는 과거의 나를 만났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을 추억할 생각은 없다. 그곳에서 나는 온통 혼자였다. 그땐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지난 한 동년에 제대로 그것을 일러줄 사람이 어디 있었겠는가. 그 막막함을 다시 갖고 싶진 않다. 그때의 오만에 가까운 자신감이 때론 그림기도 하지만, 나는 부끄러워할 줄 알며 나이를 먹아가는 것이 좋다. 나이는 그냥 먹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그때보다 나도, 내 주위도 좀 더 성숙해지고 있으니까 말이다.

다음호 수기 주제는 '자취를 한다는 것은' 입니다. 자취생활을 했던 경험이나 자취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려주세요.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모집기간은 8월 25일까지입니다. 보내실 곳은 gimmiha@harmal.net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니 생리하니?

취직문제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던 어느 날 친구내석을 만났다. 대화 중의 친구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날 보고 그 녀석 하는 말, 니 생리 하나 그러지 않아요? 난 내가 여자가, 생리하게 라며 친구의 농담을 웃고 넘겼다.

#2. 생리대

주입식교육이 제화된다는 무엇이든지 '그런가보다' 하며 그냥 잘 받아들이는 편이다. 제대 후 우연히 들은 동아리방에 비치된 생리대상자를 보고서 '음 사대가 바뀌었군' 하며 그런가보다 주의로 지나치는 순간, 함께 왔던 산책 할 '이런걸 이리대 놔두다니 참...' 집에 와서 TV를 틀었다. '깨끗하고 감쪽같아요 위스퍼'

#3. PMS(생리전 증후군)

'생리부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잘 알려진 작가 엄인희의 연극 '비밀을 말해줄까?'는 어떤 시절 부터 반복 되어온 생리 전 도박으로 임신과 낙태를 거듭하는 여성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때 란 이후 생리가 시작될 때까지 즉 생리 시작 전 4-10일 경부터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이상현 상을 생리전 증후군(PMS: Premenstrual Syndrome)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호르몬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고 있지는 못하다고 한다. 생리는 불편하고 불편하고 숨겨야 할 것이고 사람을 신경질적으로 만드는 무언가 병적인 것이 다. 생리를 하는 여자의 감정적 성향은 히스테리같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자궁이 있 다. 사실 히스테리라는 말 자체가 자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휴스테라(hysteria)에서 나온 것이 고 생리는 자궁에서 나오는 때가 아니던가. 생리전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다는 걸 보아도 생리 는 역사나 여자에서 어떤 병적인 것을 발현시키는 것이 불렀었구나, 라고 생각을 정리하려는 참 나. 라나 톰슨의 <자궁의 역사>라는 빨간책(표지가 빨갛다)을 도서관에서 발견하고 훑어보니 그림도 많은 게 마음에 들어 읽어보기로 결정한다.

답이나 달같이냐?

다운증후군이라는 것은 염색체이상을 선행조건으로 하는 유전자병이지만 그 본래적인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증후군으로 불린다.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는 환경의 요 인(방사선,오염물질)에 의해 염색체이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의 PMS 또한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증후군'으로 생리와 관련된 호르몬이상이 원인이라 추정하지만 호르몬 이상은 중간단계이고 다른 원인에 의해 호르몬이상이 야기되어 함께 생리도 빨리 시작되는 것 인지도 모를 일이다.(덜이 먼저나 달같이 먼저냐의 문제인 셈이다.)

여기서 그 다른 원인이 유전자병처럼 환경적 요인 또는 사회적 요인일 수도 있다는 가설도 충 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생리통은 정신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의사들이 말하고 있는데 직장일과 가사일을 병행하는 여성들에게 생리통이 더 심한 이유는 직장생활과 육아문 제에 대한 스트레스, 수면부족, 카페인 과다복용 등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그대로 안고 있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궁의 역사? 동어반복의 쳇바퀴

동어반복이라는 말이 있다. 정의될 말로 정의를 내린다는 논리학상의 오류를 말하는 것인데 세 상의 많은 논리가 사실은 이 동어반복의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나는 생각한다. 여성 의 몸과 그에 따른 생활양식에 대한 세상의 태도 또한 이런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닐까? 이미 남성의 행동양식과 생활양식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미리 정의를 내리고는 여성의 생리나 월경 으로 야기되는 생활상의 어떤 불편함을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이라 동어반복하고는 사회 적으로 그런 생각을 유포하고 제도화시켜버린후 이에 실리적인 위축을 느끼는 여성들의 예민 한 반응과 그런 제도화된 이데올로기를 학습한 여성을 보고선 또 기괴라 여자들은 지랄다냐간 하는 또다시 동어반복한다.

아니라고? 자, 그럼 우리 <자궁의 역사>를 읽어보기로 하자.

기독교시대엔 여자들은 자신의 육체를 불완전하고 열등하고 결함이 있는 것으로 규정한 종교 의 가르침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예스키모문화권의 월경중인 여자들은 안방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리고 출산을 앞둔 여자는 재 수 없다는 이유로 쫓겨나 격리당했다

2백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들여 상류층 주거 지역에 대단히 현대적으로 지어진 미크바는 월경 후 순결의식을 원하는 유대계 여성들을 위한 것이다.

'여자의 몸 속 은밀한 곳에 남자에게는 없는 어떤 짐승 혹은 물건이 있다. 거기서는 찜질하고 게 걸스럽고 맵고 묵묵 부시고 지독하게 건지려운...

'남자의사들은 월경 임신 출산과 폐경을 질병이라고 주장했다. 남자들은 이런 과정을 겪지 않는 다. 이러한 기능은 몸시 심각한 장애였고 여자들이 허약하다는 이유와 더불어... 여자들은 건강 을 위해서라도 직장강제에 뛰어들지 말고 결혼해서 남자에게 기대어 살아야했다.

'19세기 여자들이 배우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하거나 집안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생 각을 표현하면 마치광이 정신병환자로 몰려서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

'2000년 한국의 TV 광고 - 불안한 그날 깨끗하고 감쪽같은 위스퍼

'그리고 연극광고문구 하나 The Vagina Monologues - 보자에 관해 말하기

또한 이 연극은 처음 생리를 했을 때, 숨겨야 할 것으로 조심조심 생리대 쓰는 법을 배우고 누구 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애쓰며 당혹스러워 했던, 혹은 생리를 시작하는 것 때문에 어른들에게 야단을 맞았던, 생리혈을 흘렸을 때 혼이 났던 등의 생리에 관한 어떤 시절의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바쳐진다.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남자들, 그런데 똑같은 것 아닌가. 소위 남자들이 국 방의 의무를 지는 것처럼 여자들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인간사회의 재생산영역의 중요한 한 영 역을 책임지고 있지 않은가? 월경은 임신을 위한 아주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과정의 하나이지 않 는가. 한 달에 한 번 월경으로 약간 몸의 상태가 달라진다고 해서 남자에 비해 뭐 그리 비효율적 이란 말인가. 라나 톰슨이 책에서 재언하고 있는 생각실험처럼 만약 임신과 출산이라는 인간에 게서 중요한 재생산영역이 사회적으로 더 존중받는다면 그리하여 오히려 월경을 하지 못하는 남성이 그 차이로 인해 차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동아반복의 오류는 그만두자.

돌아다니는 자궁? 자궁의 주인은 누구일까

라나 톰슨의 <자궁의 역사>의 원제는 WANDERING WOMB, 즉 돌아다니는 자궁이다. 고대에는 여성이 가진 자궁이 몸 속을 돌아다니며 여성에게 병을 일으킨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그런 미신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자궁은 그 자궁의 가진 여성을 떠나 태아 위 한 인류메타터로 돌아다녔고 자궁도 돌아다니고 있다. 엄인희의 화곡 '비밀을 말해줄까' 에 나 오는 다음의 대사처럼,

'남편의 아이를 뱌 내 동생 정옥이. 여자들은 자기 배안으로 남자의 아이를 만들지. 너도 그 사 람 이거를 갖고 싶었지?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니 배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지? 우리 손자, 우리 조카... 우리 아이를 뱌 우리 떠느리... 니 뱃속에 있는 심장은 오로지 니 것이면서, 왜 자궁은 너의 것이 될 수 없는 걸까? 아마 아예 걸리면, 그것도 자궁에 걸리면 그때부터 자궁은 오로지 너의 것이 되는 거야. 알겠나? 아들은 혼자 간다고 기쁨은 그들의 것이 되지...'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인간은 물론 자신의 몸을 함부로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아무렇게 할 권리는 없다. 자신의 몸 에 대한 권리는 함부로 할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 정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다니는 자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리하여 성을 떠나 우리 모두 온전한 한 인간의 얼굴로 마주 대할 날을 가약해보면서 책을 달는다.

감상문 모집

(HerStory) 서평에 들어갈 감상문을 모읍니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모집기간은 8월 25일까지입니다. 보내실 곳은 gimha@hamail.net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상문의 추천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앨라배마 부인, 버지니아 울프, 집사재/담배피는 아줌마, 이숙경, 동녀 / 결혼이라는 이데올 로기, 조주원 외, 현실문화연구/내 허가 입속에 닫혀있길 거부한다면, 김선우, 참비사신

하늘 모르고 발기명천(發起 天)한 부산대 본관 건물의 형상에 비해서 뒤지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본교의 상과대학(이하 상대) 앞에도 남자의 성기 모양을 한 향나무 두 그루가 따-악 하니 버티고 서 있다. 본관은 제도관과 밖으로 존재하는 건물로서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건축되었다는 전설(을 몇 번들은 적이 있었지만, 상대 앞의 남근송은 묘연 할 뿐이었다.



INTERVIEW

언제부터 학교 정원을 가꾸셨어요?

83년부터 했어요. 그리고 보니 정확히 20년 간 이일을 했군요.

학교 정원 일은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학교의 정원을 가꾸지. 나무가 자라면 가지도 치고 화단에 꽃도 심고 잔디도 깔 고 그런 일을 주로 해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일해 요. 우선 학교 조경을 할 것인가를 계획한 후에 작업은 온실직원 6명과 함께 하고 있어요.

상대 앞 화단에 있는 위로 솟은 두 그루의 나무를 두고 학생들은 '남근송' 이라고 부르고 있 어요.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학생 신문인가? 학생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가꾸셨나요?

특별히 그와 같은 모양을 만들겠다는 의도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반 향나무의 조경은 호형처럼 통그릴거예요.

그야 그렇죠. 하지만 우리도 나무를 가를 때는 조정할 나무를 보면서, 자연적인 모습을 살 릴 것인가 아니면 인공적으로 더 손을 볼 것인가를 고민해요. 그런 다음 그나무에 적합하 다 싶은 쪽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이 나무는 내가 부산대학교 조경 일을 맡기 전부터 있었 던 거예요. 학생들 나이보다도 훨씬 많지요.

그럼 그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러니까, 30년 전부터 학교 조경을 관리하는 선임자가 있었고 나는 그바분을 이어 받아

서하고 있죠. 내가 올 때부터 그렇게 나무가 있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모양을 계속 만들어 나갔어. 우리는 그 나무를 보며, 물개 모양이라고 가꾼 거예요.

학생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당황했어요. 그렇게 의도하고 만든 게 아닌데 말야. 그런데 나도 막상 학생들의 그와 같은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 이 우리는 그런 의도가 없었고, 물개 모양이라고 만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 였겠지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 그 향나무의 형상을 보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정말로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다면 제가 학교 캠퍼스 곳곳에 남근송을 하나씩 찍하 니 심어놓는 것이겠죠?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렇게 보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까지 계속 그렇게 가꾸어오던 것을 이번이어서 가꾸는 것밖에 없고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상대 앞에 딱하니 버티고 선 향나무 형상이 물개라는 소리를 듣고 본 기자는 껌딱 놀라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남근송이 물개였다니! 모두가 뒤집어질 만한 소식. 정 원사 아저씨의 의도적인 남근송 가꾸기가 아니었음에 관망이 났지만, 이미 상대 앞의 향나 무 형상은 상징화 과정을 거쳐 남근송으로서의 명성을 획득해 굳힌지 오래이다. 이 기사 를 읽는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새로이 귀여운 물개로 상상할까, 아니면 여전히 대형 콘돌을 요하는 남근송으로 상상을 할까. 독자들의 판단이 사뭇 궁금해진다.



폭로하고 있는 이지현 기자의 미션 클리프 장국영과 인권위리는 제하의 기사에서는 "무능한 아버지와 힘을 휘두르는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사람에게 동성애가 나타난다"는 프로이트의 말을 인용하여 시작되는 이 기사는 청소년 시기에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성적체감이 고장난다면 동성애, 미마보이, 여성을 학대하는 페미니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개인의 성적취향일 뿐인 동성애를 정신병처럼 취급하는 한편, 이분법적 성역할을 강요하는 이상애적 가족주의 질서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성별과 정신병, 가정불화를 총체적으로 쥐고 있는 사람 취급을 해놓고, 따라서 어린애들이 보고 배우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불쌍한 애들이니 보살펴주고 바로잡아주는 것이긴? 누굴 갖고 노냐? 어느 집단을 집단적으로 인격모독을 해놓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학적 용어로 '모순'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란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에게 고추가 달렸는지, 판 게 달렸는지 진정한 사랑과 관련한 사랑을 가르치는 본질적인 기준이 되어야한다고 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속옷 안 사정을 살피는 그 더러운 관음증은 음란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내 주위에는 동성애자 친구들도 많고 커플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은 이상애사회의 폭력만 없다면 어느 이상애자들보다 더 평화롭게 살고 있으며, 그들은 오히려 이상애자보다 나으면 나았지 남보다 머리가 나쁘거나 정서적으로 전혀 불안하지 않다. 이상애자들의 환상으로 한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동성애자들을 정신이상자 취급하는 것은 인격적 학살에 다름 아니다.

한국 기독교는 남의 애정문제에 신경 쓰지 말고, 그 자신이 드러내고 있는 폭력과 광기에 매스를 대야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정 사랑하는 법'을 다시, 그리고 제대로 배워야 한다.

사랑해요 전주, 사랑해요 JIFF

전주국제영화제를 보러간다는 설레임에 중간고사를 줄잡게 끝내고 4월 28일 토요일 새벽부터 집을 나섰다. 어찌어찌하여 동진 우리의 다섯 마녀들, 워낙에 일찍 출발한 탓에 오전에 도착. 전주의 공기를 마시며 한층 up된 기분으로 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했다.

맛있는 도시, 전주

"와악 트여있구나." 전주에 도착해서 받은 첫 느낌이다. 나지막한 건물들 덕택에 시야가 트여서 작지만 커다란 도시이다. 속이 뻥 뚫리는 군, 온갖 고층 건물들로 빼곡이 둘러싸인 여느 대도시와는 사뭇 다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었잖아? 누가 말했든가. 전주의 음식은 감동이라고... 사실 영화보다 음식에 더 많이 감동했다. 전북대학교 교원학생이었던 별리 덕택에 작은 소문난 국수집, 그곳에서 맛본 갖가지 국수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 없는 전주비빔밥, 냉면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군침이 돌아서 미칠 것 같다.)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설명할 수는 없고 직접 먹어야만 한다.

영화의 바다에서 헤엄쳐라!

앗! 우리는 영화 보러 왔잖아! 1박2일간 전주에 머물렀는데 총 세 편의 영화를 봤다. <올 더 리얼 걸즈>, <아프간의 봄>, <에메이징 커피>.

우리가 본 영화들이다. 도착한 당일 낮에 본 첫 영화가 <올 더 리얼 걸즈> 였는데 젊은 두 남녀의 사랑이야기다. 영화도 좋았지만 "전북대학교 문화관"을 잊을 수 없다.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이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교 캠퍼스 내에 딱 하나 자리잡고 있어 '아아 좋네! 보드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쪽 사람들 말로는 S기업에서 무지한 문화관이라한다. 자연스럽게 '부신대학교 문화관'을 그리보게 된다.

<올 더 리얼 걸즈>를 보고 문화관 앞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페이스페인팅을 하게 되었다. 우리 무리를 보고 저기서 한 남자가 걸어오며 말을 건다. "영화잡지 프리마어 기자입니다. 사진 한 장 찍어도 되겠습니까? 페이스페인팅이 잘 되었나? 어렸든 그 유명한 프리마어, 잡지에 나올 기대에 한껏 부풀어 어설튼 포즈 잡고 활라. 간단한 인터뷰 마치고 열나게 뛰었지만 결국 영화제 버스를 놓치고 말았다.(흑흑) 작년 6월호 프리마어에 우리가 나온



까요? 궁금궁금 기대기대.

뛰니뛰니해도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단연 <아프간의 봄>이다. 우리 멤버들은 2시간이 넘게 깊은 잠의 나라로 인도했다. <아프간의 봄>은 1989년 전쟁 후 아프간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일본의 유명한 초치모토 노리아키 감독의 작품인데 만든지는 오래되었으나 최근 아프간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다시 햇빛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아프간 사람들의 일상적 모습을 다룬 작품이라 솔직히 많이 지루했으나 팔자는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관람했다. 영화가 끝난 후엔 감독과의 대화시간도 마련되었는데 유명한 감독을 실제로 보았다는 기쁨이 컸다.

세 번째 영화 <에메이징 커피>는 프랑스인 부부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오해들, 황당하면서 소세도 독특하고 재미있었다. 영화는 재미있었으나 상영중간에 한글자막이 끊기는 아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났다. 한창동안 영어 자막 해석하느라



업정 고생했다. 결국 상영을 잠시 중단하고 자막 복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런 일도 있구나. 살아 생전에 다시는 이런 경험 할 수 없겠지. 불쾌한 생각은 들지 않았고 특별한 경험이 신기하기만 했다. 다들 같은 생각이었는지 항의하는 사람도 없었다.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

전주국제영화제는 매니아층을 위한 영화제라 불릴 만큼 대중적이지 않은 영화가 많다고 들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쉽게 볼 수 없는 영화도 접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시간이 쫓겨서 영화를 많이 보지 못한 게 무척이나 아쉽다.

불면의 밤, 잊지 못할 기억을 다시 만들게 되길

전주를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고 전북대학교 문화관 앞에 프리마어 열리기 시작했다. 갖가지 아가자기한 소품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영화 세 편에, 전주의 감동스런 음식에, 재미난 구경거리에 이만 만족하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터미널로 향했다.

이 곳을 다녀와서 영화제가 좋았다고보다는 전주라는 도시가 무척 맘에 들었다. 전라도 말씨도 좋고, 이맘

때쯤 풍납제라는 먹거리

축제도 열리는데

영화제와 풍납제가

겹치는 시기에 전주

를 찾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였다. 풍납제,

전주국제영화제 불면의

밤(자정부터 아침 7시 정

도까지 밤새 영화를 관람하

는 프로그램)을 기대하며 내

년을 기억해본다.

마실과 함께 마실을 넘어!

마실은 여성주의 기획동아리입니다. 여성이라 여행 떠나기 힘들죠? 마실에서는 이번 여름방학 여성들만의 강원도 여행을 떠납니다. 8월 초 예정으로 강원도의 한-을 느끼고 돌아오고 싶은 분 016-217-8966 (kak-hill@freechal.com)로 연락주세요. 마실에서는 그 밖에도 부천 국제 판타 스틱 영화제(7월 중순) 탐방과 상해에 살때(6월 말-8월 중순)도 합니다. 참가비는 각자 부담 - 2 지원금 나갑니다. 많이 연락 주세요! 아이 원유!